



[뉴스] 유명희 등 8명 WTO사무총장 출사표 02



Economy

코스피	2167.90 (+9.02)	코스닥	772.90 (+6.94)
금리 (미국 3년)	0.840 (+0.001)	환율 (원/달러)	1195.50 (0.00) (9일)

옵티머스 전원 퇴사 퇴직으로 면피 꼼수 5000억 보상 ‘깜깜’

사태 발생 후 직원 12명 모두 퇴사 실사단 ‘디지털 포렌식’ 작업 검토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는 사모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참극이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를 속였다. 하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배상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다. 사태 발생 후 직원은 모두 퇴사했고,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운용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퇴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은 현재 0명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12명에 달했지만, 환매 중단 이후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 상태다.

직원이 남아있지 않아 자산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애를 먹고 있다. 기본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 방식을 조사하고, 자산을 실사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데이터가 담긴 각종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렌식 등을 활용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걸려서다.

결국 직원들의 전원 퇴사로 자산 실사 기간은 길어지게 됐다. (3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도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부장 강국 도약... 글로벌 공급 기여”

文 대통령, 이천 SK하이닉스 방문 “수출규제 1년 다다른 길 같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1년을 앞두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나아가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찾아온 국내 산업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2.0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자국중심주의로 전환해 글로벌 분업구조 균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크게 ▲글로벌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첨단산업의 세계공급망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과 관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한 핵심 관리품목 338개 지정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및 육성 ▲디지털 공급망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소재 혁신 AI 플랫폼 도입 등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부채 공화국의 그늘

은행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족한 주택구입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져서다. 일부는 주식투자에 나설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을 통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

요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과 대출 만기연장을 은행에 주문하고 있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로 연명하는 중소기업 증가에 따른 부실을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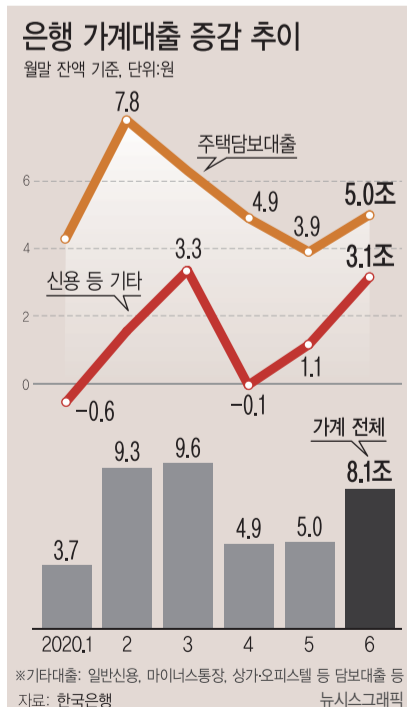
1 집 사고 주식 사고... 가계대출 8.1조 ↑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신용 대출만 3조 늘어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8조원 넘게 늘었다. 기존 자금소요가 많지 않던 6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거래는 물론 공모주 청약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신용대출은 6월에만 3조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8조1000억원이 늘면서 전월 5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이 늘었다. 아파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대대출 취급도 늘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이 늘어 전월 증가폭 1조1000억원의 3배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2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하면 zombie기업 늘어 은행 부실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이차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물경기 회복 없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업과 은행 모두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및 기업 자금사정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은행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추가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된 만큼 부담감이 적잖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매달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4월말 기준 0.21~0.33%였던 연체율은 한 달 후 0.23~0.35%로 집계됐다.

게다가 은행들은 일괄적으로 추가 만기연장을 할 경우 zombie기업의 존속으로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zombie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차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법인세 14조 등 올 세수 16조 덜 걷힐 듯... '코로나 쇼크'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여건진단'

세수 전망 5.7% 줄어든 276.7조
올 법인세 수입 6년만에 감소세
부가가치세·관세수입 하락 예상
중부세·근로소득세는 더 걷힐 듯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올해 세수가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별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

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293조 5000억원)보다 16조 7000억원(-5.7%) 감소한 276조 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

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 2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 70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전년 실적(72조 2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19.3%)이나 감소한 58조 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대로 된다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

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70조 8000억원보다 7조 1000억원 줄어 63조 7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상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또 주요국 경제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한 7조 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8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은 293조 5000억원으로 세

입예산보다 1조 3000억원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 2000억원으로 전년(139조 5000억원)보다 21조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고려해도 10조 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세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인 WTO 사무총장 나올까... 유명희 등 8명 출사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韓, 세번째 도전... '중견국 지위' 공략
美·中·유럽 중립적 역할 등 강조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사무국이 8일 오후 6시(현지시간)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을 비롯해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후보가 지원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는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수 마감 불과 몇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가 나오면서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이 가능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이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전문가라는 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한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5년간 통상전문가	 영국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통상 전문가, 다자주의 지지자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펜조-이델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 세계은행 전무	 몰도바 투도르 울리아노프스키 몰도바 외무 장관
 이집트 하미드 맘두 외교관 출신 변호사 전 WTO 관리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고위통상 관료
 케냐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 케냐 문화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마지야드 알투와이즈리 사우디 전 경제·기획부 장관 금융전문가

/연합뉴스

염증(코로나19) 사태 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집중 부각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후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펜조 이델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오펜조 이델라 의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 전무는 맡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최근 코로

나19 사태에서 Gavi를 이끌면서 WT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그동안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점과 여성이 이 기구에서 최고직에 오른 적도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집트 외교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하미

드 맘두는 전직 WTO 관리 출신으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도 케냐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프리카 출신 후보다. 아프리카 국가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은 단일 후보를 내 WTO에서 목소리를 높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선진국 입장을 대표하는 유럽 출신 후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영국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서 국제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리엄 폭스, 몰도바 외무장관을 지낸 투도르 울리아노프스키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서도 각각 후보를 냈다.

WTO는 앞서 아제르바이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 수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오는 15~17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 질문을 받는다. 유 본부장 발표 순서는 후보 접수 순서에 따라 5번째로,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회원국별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의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韓-캄보디아 FTA 추진 산업부, 협상개시 선언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째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9일 15시(한국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정부간 실무협외와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측 모두 국내 절차를 완료해 이번에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연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젊은 인구가 72%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

유 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 체결을 통해 캄보디아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7월 중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상품 시장개방과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키로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대면 회의 방식을 병행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째 소라삭 장관은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 본부장이 그간 통상현장에서 보여준 다양한 경험과 식견,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 기자

유명희 "WTO 무역규범, 디지털시대 전환 대비해야"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업 뿐 아니라 제조, 서비스 등 전통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상 환경 흐름을 대비하고 디지털 통상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통상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제시한 디지털경제통상 전략은 △양자·다자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비롯해 ▲전략적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추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제도 개편 ▲디지털통상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경제의 미래와 통상'을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지능형 디지털전환'(심진보 ETRI 책임연구원),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환'(김광순 디앤드 대표) 등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반도체 소부장 독립’에 민관 전방위 지원한다지만

문제는 美·일에 의존하는 장비... “3대 카르텔’ 뚫어야”

(美·日 장비업체)

1년간 소부장 국산화 큰걸음
2.0 전략 지원책 업그레이드
하이닉스도 투자 ‘의기투합’

난이도 높은 장비는 성과 부진
“막대한 투자, 개발 수반돼야”

일본 수출규제 1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독립 운동이 속도를 붙였다. 기업 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전폭적인 지원 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소부장 업계가 미국과 일본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2.0 전략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정부 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등 관련 업계도 함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 지정 및 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리쇼어링 지원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일본 출장 직후 사장단을 소집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불화수소 협력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SK 회장. /뉴시스

시하며, 소부장 부문 국산화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년여간 협력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K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오테크닉스와 솔브레인을 비롯한 국내 협력사에 기술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준 높은 장비 개발을 가능케함과 동시에 생산 수율까지 높이는 ‘윈윈’ 성과를 거뒀다. 이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스마트 공장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협력사가 원할시 투자금뿐 아니라 인력까지 파견해 공장 효율화를

돕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인공지능반도체공학연합전공’을 신설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에 반도체 공정장비와 계측 장비를 기증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SK그룹도 소재 관련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SK하이닉스에 이어 SK머티리얼즈와 SK실트론에 이어 미국 듀폰의 SiC 웨이퍼 사업을 인수하고 국산 반도체 소재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성과도 컸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월까지 불화수소 일본 수입 비중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12%로 대폭



삼성전자 직원(오른쪽)과 이오테크닉스 직원이 양사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줄었다.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등 업체가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하면서다. LG디스플레이는 액체 불화수소 전량을 국산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기체 불화수소도 조만간 양산될 예정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조만간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극자외선(EUV) 장비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국산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미국 등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오히려 일본 TOK가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국내에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작법인인 TOK첨단소재로 옮기는 등 일본 현지기업의 탈일본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기술이 담긴 장비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산업평가기술관리원에 따르면 전공정에서 장비 국산화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난이도가 높은 노광 공정 국산화율은 0%다.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양산 기술력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학회에서도 장비 업계가 첨단 반도체 양산과 관련한 기술을 앞서서 소개하고, 이후 양산에 적용되는 정도다. 반도체 장비 기술력이 뒤쳐진 상태에서 반도체 양산 사업을 ‘재주 부리는 꿈’이라고 보는 자조도 여기에서 나온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와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3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3사가 첨단 장비와 관련한 주요 특허들을 독점하고 있는 탓에, 이들을 따라잡으려면 더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소부장 2.0 전략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기에서 나온다. 지원이 주요 업체에 집중돼 기술력을 높이는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리쇼어링 지원과 같은 의미 없는 정책도 포함됐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관련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거 일본과 같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3대 장비 업체 카르텔을 뚫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선행해 주요 특허를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2022년까지 소부장 338개 품목 5조 투자”

‘소부장 강국 도약’ 청사진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

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 청사진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 일본 핵심품목 100개에 더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연구개발,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

“과징금 등 징벌 체계 부활해야”

>> 1면 ‘옵티머스 전원회사’서 계속

펀드의 예상 손실액이 확정돼야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운용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운용사 직원들은 퇴사로 모든 책임을 털어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당 운용사의 직원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직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징금 등 징벌 체계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옵티머스펀드는 운용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서류를 조작해 수탁사, 사무관리

사, 판매사를 모두 속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악용한 운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옵티머스가 투자자에게 100%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와 수탁기관, 투자자 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책임자의 처벌을 미국 수준으로 크게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 금액을 보상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미 기자 sonumij301@



현대해상은 9일 서울핀테크랩과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해상 정규안 디지털전략본부장(왼쪽)이 서울핀테크랩 위탁운영사 케이엑셀러레이터 소재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불법자금용 피해신고센터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자금용 피해신고센터에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품질평가'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G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감점률인 45%가 적용돼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이동통신사는 "최악은 면했다"며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이달 예고된 '5G 품질평가'에 이동통신사는 긴장을 놓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평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첫 상용화된 5G 서비스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품질 평가가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아닌 정부 주도의 첫 공식 발표 5G 선두 자리두고 이통사 성적표 주목 연말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확정

지난해 상용화된 5G는 제조사가 '갤럭시S20' 등 단말을 쏟아내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5G 가입자는 687만6914명으로 전월보다 53만6997명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가 5G 단말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5G 이용자는 지하철이나 실내에서 5G가 LTE로 자동 전환되는 등 끊김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도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1이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인 것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공신력 있는 5G 성적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5G 선두에 섰으며, 품질 경쟁을 벌여왔던 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G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동통신사에 설비투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는 애초 올 상반기 4조원의 자금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가 올 1~4분기에 지출한 설비투자(CAPEX)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 줄어든 총1조881억원이다.

연말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도 확정해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이통 3사에 재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역별 이용기간과 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이통사가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당 주파수의 경매가를 반영하게 된다면, 최대 3조원까지 주파수 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비용이 과도하게 높으며,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여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R&D 지원금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간 국가사업 참여불가

과기정통부 R&D 혁신법 시행령

R&D 환경조성 등 필요사항 규정 8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실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부정사용 금액규모 따라 제재

내년부터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정 사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 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R&D 사업 지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위반해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다른 R&D 사업에 6개월~2년까지 참여할 수

없으며, 1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과기정통부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사용 금액 기준)		참여제한 기간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하	100%	100%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년 초과 4년 이내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			4년 초과 5년 이내
1억 초과 5억 이하	1억+1억 초과금액의 150%	1억+1억 초과금액의 150%	5년 초과 7년 이내
5억 초과	7억+5억 초과금액의 200%	7억+5억 초과금액의 200%	7년 초과 10년 이내

이하의 2~4년까지,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의 4~5년까지, 1억원 초과 5억 이하의 5~7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또 부정사용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사용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 부과되지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과 더불어 1억원 초과금액의 150%도 부과되며, 5억원을 넘어설 경우 7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200%까지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는 위반 금액만큼만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하기로 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전에는 전체 연구비 1억원 중 100만원만 부정 사용했어도 1억원을 전부 환수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해당되는 100만원만을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뀌 더 합

리적으로 변경됐다.

또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제재를 했는데 그동안 제재가 부처마다 상이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R&D혁신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연구자를 한번 더 검토하는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돼 더 공평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그린뉴딜 발판 삼아 분산전원 체계 마련해야”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 미래 토론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중요”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판 삼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전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들어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에 의해 에너지산업의 뉴노멀 시대 대응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너지산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에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주요한 축은 '그린 뉴딜'이다”며 “전력분야는 석탄과 원자력 등 중앙집중형 방식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구조로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보면 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박호정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술적인 문제가 많다. 이에 제도로 막혀 있는 대목도 있지만, 이 같은 틈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혁 한전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쳐 올해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6%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70년 기간 중 가장 큰 감소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충격의 7배”라며 “올해 글로벌 전력 수요도 전년 대비 5% 감소하고, 일부 지역은 10~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영향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로는 공공성을 갖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발전원가의 투명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지역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생산부터 조달, 설치, 인허가,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 2050년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야 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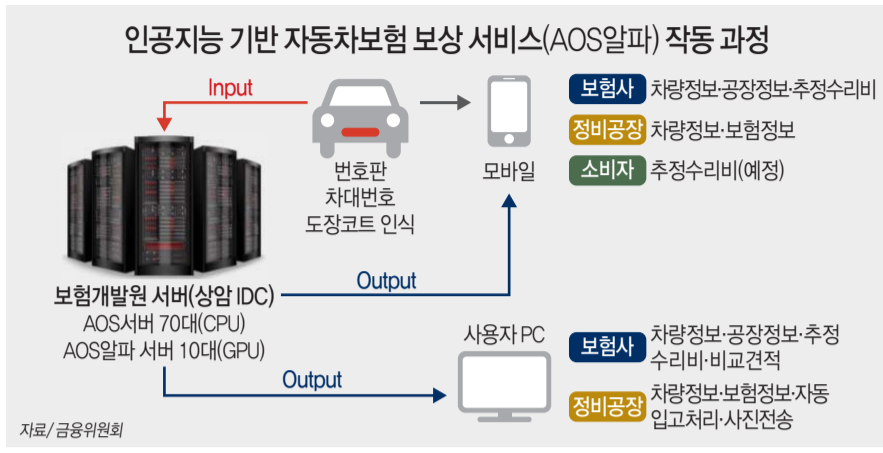
車 파손부위 찍으면 AI가 견적낸다... 금융업 혁신 박차

금융위,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AI가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 판독 보상업무 처리과정 시간손실 최소화

내년부터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손상 상태를 분석해 수리비를 계산하는 서비스가 모든 손해보험사에 도입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경기도 이전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 보험 보상서비스'를 시연·체험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언택트(비대면·untact)가 촉진되는 등 변화가



가속화 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이 체험한 'AI기반 차

동차 보험 보상서비스'는 AI가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판독해 예상수리비를 자동 산출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사고차량을 찍어 입력

하면 AI가 차량의 주요 외관부품을 인식, 수리내역과 자동으로 연결해 보상 직원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연관된 사진을 제공한다. AI가 사람의 눈이 돼 차량의 손상사진을 판단 후 수리비 견적을 자동으로 산출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고차량의 사진에서 AI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차량번호를 추출해 보험계약정보와 자동 연결, 보상업무 처리과정의 시간손실을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AI기반 자동차 보험 보상 서비스'가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신속·정확하게 산출하고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시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AI 모델

학습과 기능개선으로 예상수리비 정확도를 향상시켜 정비공장, 소비자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보호의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지속해 달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역량 제고와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친환경 문화 앞장

우리금융, 유기농 간식·텀블러 나눔 매주 수요일 일회용품 없는 날 장려 임직원들에게 받은 중고장난감 기부

우리금융그룹이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우리(WOORI)가 지킨다 시즌 2'를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실시된다. 작년에는 에너지 절약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래시장 에코백 기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유기농 간식과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텀블러를 나눠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권광석 우리은행장(왼쪽 두번째), 박필준 노조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매주 수요일 일회용품 없는 '우리 그린데이(WOORI GREEN-DAY)'를 실시한다. 본점 내 일회용품 반입을 제한하고, 계열사와 영업점에서도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장려한다. 또 자원 순환사용을 위해 임직원

들에게 중고 장난감을 기부받아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손태승 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그룹사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사내 친환경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Sh수협銀 해진공·선주협과 해양쓰레기 저감실천

Sh해양플라스틱제로 예·적금

Sh수협은행은 9일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이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상품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은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위한 기금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연 평균잔액의 0.05% 이내)으로 해양환경공단 등에 지원하는 공익상품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KS A는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녹색해운 구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KSA 직원과 회원사 구성원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수협은행 상품을 가입해 간접적으로나마 해양환경보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6일에는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수협 은행과 손잡고 해양산업의 재건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RPA·애자일 조직으로 디지털 혁신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RPA 도입... 연간 약 6만시간 절감

신한카드가 디지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애자일(Agile) 조직'을 화두로 내세웠다.

신한카드는 RPA가 도입 2년만에 카드 모집, 심사, 발급 업무부터 대금 정산, 오토금융, 영업 지원까지 100여 개 프로세스에 적용돼 연간 약 6만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RPA'는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다. 로봇이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안 사람은 고부가가치,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신한카드의 RPA는 단순반복 업무

를 넘어 사람과 로봇이 협업 하도록 개발했다. 업무시간에 접수된 작업을 RPA가 야간에 처리해서 준비해두면, 사람이 후속 작업을 다음날 업무시간에 이어서 하는 방식이다.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부서 간 경계 없이 소규모 팀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연중 과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셀(Cell) 조직', 2~3명 규모의 프로젝트 팀 '스쿼드'를 통해 1년 반 동안 6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신한카드 유대현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영 과제"라며 "신한카드는 RPA와 애자일 조직 바탕의 전사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회사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삼성카드

지역특색 살린 상생 캠페인

삼성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지역 상생 캠페인 '헬로, 로컬 파머스!(Hello, local farmers!)'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기획했다. 삼성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매입해 상품으로 제작했다. 캠페인 품목인 전북 군산의 '만전 김세트', 경북 문경 수매한 오미자로 만든 '오미베리 오리지널'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패키지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김 세트의 경우 '웃으면 김이 와요'라는 재치 있는 문구를 더했다. 오미베리는 상품명 '베리'에서 착안해 '베리 굿, 베리 웰, 오미베리'로 지역 사회에 대한 응원을 담아냈다.

지역 상생 캠페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지급한다. /이영석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나눔재단

사회공헌 사업 지원... '하나드림' 론칭

하나금융나눔재단-세이브더칠드런 금융·ICT분야 진로희망 아동에 교육

하나금융나눔재단이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드림'을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드림'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금융·ICT와 같은 특정 진로 교육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조부모와 손자모만 가정인 구형 빈곤가정 및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중점 지원한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세이브더칠드

런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향후 1년 동안 총 21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조손가정 아동 70명에게는 금융·ICT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145명에게는 코딩 교육과 로봇 만들기, 드론 체험 등 체험형 ICT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금융·ICT 인재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이 점찍은 미래기술... 양자 AI 등에 123억 지원

SAMSUNG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사업 12개 선정
반도체 미세화 한계 돌파 기술
알츠하이머 세포치료제 등 엄선

삼성전자가 또 다시 미래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양자컴퓨팅에서 난치병 치료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를 뛰어넘을 연구 과제를 엄선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2개를 선정하고 9일 발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를 설립해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조5000억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초과학과 소재, ICT 분야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2014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지정테마 과제공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 테마 지원 연구 선정과제〉

*연구책임자 성명

지정테마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소재	Disruptive 반도체 구조 및 구현 기술	
	Disruptive 반도체 소자 제 1원리 기술전산설계 방법론	김용훈(KAIST)
	전자를 이용한 1nm급 무손상 원자층 식각 원천 기술	정진욱(한양대)
	M3D를 위한 비정질상 위 결정방향 제어가 가능한 저온단결정 active층 형성 기술	최리노(인하대)
	차세대 자발광 디스플레이	
	초저전류 구동 초고해상도 무기물 기반 자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김상현(KAIST)
	Rec.2020급 고안정성 단결정 Ruddlesden-Popper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자발광 소자 연구	신병하(KAIST)
	난치병 치료 위한 세포치료제	
	전자기성 반응성 유전자 스위치 통한 universal 세포 치료기술 개발	김종필(동국대)
	고형암 타겟 암 항원 표적 CAR 벡터 검색을 위한 라이브 FRET 센싱 기반 fine-tuning CAR 벡터 최적화 기술 개발	성지혜(KAIST)
ICT	범용성 카메라-항원-수용체 Foxp3-도입 면역조절 T세포를 이용한 이식거부반응 제어기술 개발	양재석(서울대)
	알츠하이머 세포치료제 유효성 평가 위한 인공 뇌 인큐베이터	조승우(연세대)
	양자컴퓨팅 실용화 위한 원천 기술	
	NISQ 기계 학습과 양자오류완화 원천 기술	이준구(KAIST)
	차세대 실감미디어 디바이스 및 처리 기술	
	상변화 물질 기반의 유연한 공간 광 변조기	유경식(KAIST)
	B5G&6G	
대규모 고성능 신경망 서비스가 가능한 6G실현을 위한 On-Path Computing 기술 개발	이경한(서울대)	

모'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기술 분야를 지정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혁신적인(Disruptive)

반도체 구조 및 구현 기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양자컴퓨팅 실용화를 위한 원천 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총 12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적인 반도체 구조 및 구현 기술' 분야에서는 반도체 미세화 한계를 돌파할 기술을 주로 선정했다. ▲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식각 기술(한양대 정진욱 교수)▲반도체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 밀도를 높이는 기술(인하대 최리노 교수) 등 3개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치료 효능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이식 거부 반응 해결 등 연구를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알츠하이머 세포치료제 전용 평가 모델 개발(연세대 조승우 교수) ▲특정 전자 기파에 반응하는 유전자 스위치 연구(동국대 김종필 교수) 등 4개다.

양자컴퓨팅 실용화 기술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기계 학습, 인식 알고리즘 보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NISQ(Noisy Intermediate-Scale Quantum, 잡음이 있는 중간형태 양자컴퓨팅) 기계 학습과 양자오류완화 원천 기술'(KAIST 이준구 교수) 과제가 주인공이다.

아울러 '차세대 자발광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실감미디어 디바이스 및 처리 기술', 'B5G & 6G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4개 과제를 추렸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이번 대상자를 포함해 누적으로 기초과학 분야 201개, 소재 분야 199개, ICT 분야 201개 등 총 601개 연구과제에 7713억원의 연구비를 집행했다. 국제학술지에 1241건 논문을 게재했으며,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최상위 학술지에도 93건을 발표하는 등 성과도 이뤄냈다.

카이스트 손종우 교수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한 과도한 소금 섭취를 제어하는 메커니즘 규명, 고등과학원 김상현 교수 연구팀이 인벤시오 네 마테마티케에 소개한 미적분 전개 가능한 다양체의 수학적 성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대표적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인애이블링 퍼플' 아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스마트공장, C랩 아웃사이드, 협력회사 상생펀드 등 상생 활동과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여름 전기세 ‘스마트싱스’로 관리하세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전기 사용량 관리 업그레이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사진)가 에너지 절감 기능까지 담았다.

삼성전자는 9일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강화해 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스마트싱스 앱에 연동된 가전 제품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절감 팁과 예상 전기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처음 론칭한 1



름철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가 되면 에어컨에 절전 신호를 보내 에너지 절약

년여 만에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쓸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추가한 것.

우선 '에너지 절감 서비스' 기능을 적용해 여름철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가 되면 에어컨에 절전 신호를 보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해준다. 일별 에어컨 사용 요금을 설정해 목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새로 탑재한 '에코 버튼'은 에어컨을 특정 시간 동안 절약 모드로 실행해준다.

이 밖에 ▲실내에 가족 구성원이 없는데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일 경우 알림을 보내 전원을 끄도록 제안하고▲연결된 기기의 총 에너지 사용 요금 수준을 월별 목표와 비교해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김재용 기자

스마트폰도 'K 바람'... LG, 실속형 'K시리즈'로 글로벌 공략

실속형 'K 시리즈' 라인업 강화 페루 등 출시 국가 21개로 확대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실속형 스마트폰 출시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이달 파나마, 페루, 코스타리카 등 6개국에 실속형 스마트폰 LG K61, LG K51S, LG K41S 등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5월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K 시리즈'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K 시리즈가 출시된 국가는 약 15개국에 이른다.

LG전자는 3분기에도 K 시리즈 출시 국가를 확대한다. K 시리즈는 실속형 임에도 쿼드 카메라, 6.5형 이상 대화면 디스플레이, 대용량 배터리 등을 탑재했다.

또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인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해 내구성도 인증받았다. 이 표준은 군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



LG전자가 파나마, 페루 등 6개국에 실속형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왼쪽부터) LG 스타일로 6, LG K41S, LG 51S, LG 61. /LG전자

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저온·고온, 습도, 진동, 충격, 열충격 등을 테스트한다.

LG전자는 K 시리즈 외에도 지난 5월 북미 시장에 LG 스타일로 6을 출시하며 실속형 스마트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LG 스타일로' 시리즈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스타일러스 펜을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금까

지 북미 시장에 총 6개의 LG 스타일로 시리즈를 출시했다.

'LG 스타일로 6'은 200달러대 제품임에도 6.8형 대화면 디스플레이, 4000mAh 대용량 배터리 등을 갖췄다. 또 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후면에는 각각 1300만, 500만, 5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이현록 현대글로벌비즈 종합물류연구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재성 파크시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현대글로벌비즈 본사에서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즈, 물류 스타트업 성장 지원

파크시 근거리배송 사업 지원 협약

현대글로벌비즈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국내 물류 스타트업의 사업 안착과 성장을 돕는다.

현대글로벌비즈는 신생 스타트업 파크AI의 '도심 유희공간 활용 근거리 배송 플랫폼'(이하 근거리배송플랫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즈는 앞으로 1년간 파크AI가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한편, 기존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계획이다.

이번 스타트업 지원은 현대글로벌비즈가 지난해 추진한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트 무브 챌린지'의 결과물이다.

현대글로벌비즈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연구혁신)' 형태의 신사업 공모전을 열고 물류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친 뒤 올해 2월 현대글로벌비즈 본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서 최종 입상한 파크AI는 지난 4개월동안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현

대글로벌비즈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최초 기업이 됐다.

현대글로벌비즈는 독보적인 물류 역량 및 사업 경험이 파크AI의 근거리 물류 플랫폼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IT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신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크AI의 근거리 배송 플랫폼 사업은 수도권 외곽이 아닌 도심 근거리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배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유희공간을 창고로 활용해 화주사의 제품을 보관하고 트럭과 이륜차로 고객에게 즉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제품 판매자와 참고 제공자, 근거리 배송사업자를 잇는 도심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플랫폼의 목표다.

근거리배송플랫폼 사업은 서울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화주가 늘어나면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약 13조8000억원, 도심물류 시장은 약 6조6000억원으로 형성돼 있어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도 높다.

현대글로벌비즈는 궁극적으로 이번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신사업 발굴뿐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올컨두잇! 올원뱅크!

금융부터 다양한 생활 혜택까지!
올원뱅크의 무한능력을 만나볼까요?

- 하. 무료할 때 VOD, 웹툰, 웹드라마를 무료로 즐긴다
- 둘. 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금융을 손쉽게 해결한다
- 셋. 원하는 환율일 때 환전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 넷. 생활 속 유용한 상품을 최대 90% 핫딜로 구매한다

무한능력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



QR코드로 간편하게 올원뱅크를 검색해보세요

*무료 코인 제공으로 웹툰 감상 가능 *추첨을 통해 핫딜 상품 구매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1818(2020.04.28~2022.04.25) *서비스 관리 부서: NH농협은행 올원뱅크센터C네

글로벌 공략 나서는 완성차...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강화

현대차 클릭 투 바이 서비스 진행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구매 기준 평가

기아차 해외시장서 동행 캠페인
범유럽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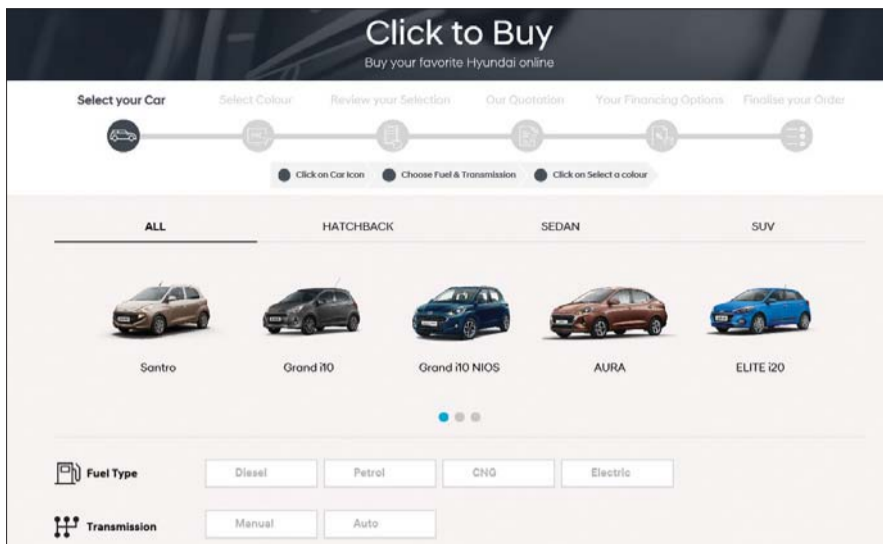
한국지엠 모기업 홈페이지 개편
차량에 자세한 소개·영상 등 제공

쌍용차 현지딜러와 온라인 소통
티볼리 가솔린 모델 온라인 출시행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상반기 판매가 부진했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의 상반기 판매량은 303만3798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386만6229대) 보다 약 21.5% 감소한 수치다.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 모두 내수 판매는 증가했지만 수출 실적은 5개 업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현대차 온라인 자동차 구매 서비스 '클릭 투 바이'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인도, 호주 지역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 '클릭 투 바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선보인 인도의 '클릭 투 바이' 서비스는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의 인도 온라인 차량 구매 플랫폼

포인 '클릭 투 바이' 방문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도 2만 명에 달한다.

기아차는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아차는 5월 중순부터 유럽을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기아차는 당신과 동행합니다(#KiaMovingWithYou)'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할부금 납입 유예, 차량 항공 서비스, 홈 딜리버리 서비스, 인터넷 시승 예약을 비롯한

지역에 맞는 고객 만족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건기관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중이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범유럽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 독일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차량 구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현대와 동풍얼달기아는 각각 '신안리더(마음의 평온과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와 '아이신부두안(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이라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차량 구매 후 실직, 전염병, 사고 등 고객이 처한 상황이 변하면 차량을 교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신개념 구매 안심 프로그램이다.

한국지엠 모기업 제너럴 모터스(GM)은 북미와 남미 등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전시장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의 특징점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사진과 간단한 소개 자료만 제공했다면 지금은 차량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자료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 소비자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수출 시장이 막힌 쌍용차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유럽 수출 모델인 티볼리 가솔린 1.2터보 모델을 온라인을 통해 출시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 딜러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분기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현지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매 감소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 디지털 신차 론칭을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하는 반면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제품 정보 등을 자세하고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2차 협력사 '상생결제' 5년만에 10배 ↑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 권장
상생협력 위해 컨설팅·자금 지원 추진

LG전자가 상생 시스템이 2차 협력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난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금액이 2015년 첫 시행 후 5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LG전자가 1차협력사로,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 2차 협력사도 LG전자 신용도를 적용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LG전자가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 창원에 위치한 가전 부품 협력사에서 생산성 향상 활동을 펼치는 모습. /LG전자

수 있다.

이를 이용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결제한 금액은 2015년 352억원에서 지난해 3673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2075억원에 달했다.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 대비 2차 협력

사에 지급한 금액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7.4% 대폭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10%로 더 확대됐다.

LG전자는 공문과 가입절차 안내 등을 통해 1차 협력사들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협력사에 평가 시에 가점을 제공해 더 많은 2차 협력사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무이자 자금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 지원 ▲무료 교육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해외시장 나서는 'XM3'... 칠레에 첫 수출

르노삼성차 XM3 수출 선적 개시
첫 선적 물량 83대, 올해 140대 계획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인기 차량인 'XM3'의 본격적인 수출에 돌입한다.

르노삼성은 오는 25일 프리미엄 디자인 SUV XM3의 해외 수출 선적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XM3의 첫 수출 지역은 칠레이며 첫 선적 물량은 83대다. 르노삼성은 향후 연말까지 추가로 57대를 수출해 올해 총 140대의 XM3를 칠레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적되어 수출되는 XM3는 칠레 시장 판매를 위한 대리점 전시와 고객 시승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



르노삼성 XM3.

정이다. 르노삼성은 올해 칠레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XM3는 지난 3월 한국 시장 출시 이후 2개월만에 국내 B세그먼트 SUV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첨단방어 시스템 평가 용역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기 첨단 방어 시스템인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의 초도 운용시험평가가 지원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DIRCM은 항공기에 장착하는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MANPADS) 대응 장비로 적의 미사일 공격이 탐지되면 적외선 방해 레이저(기만 광원)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 운용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받아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신제품 6종 출시

고객 요구 맞춰 제품선택 범위 확장

두산로보틱스가 협동로봇 A시리즈 4종과 H시리즈 2종 등 총 6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9일 두산로보틱스에 따르면 A시리즈는 가격을 낮춰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 최고의 속도와 우수한 가속성을 구현했다. 첨단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적용해 국제 시험인증 공인기관 인티유브이슈드(TUVSUD)가 실시한 안전성능수준 평가에서 최고 레벨을 획득했다. 사람의 손재주가 필요한 섬세한 작업의 경우 정교한 힘 센서가 장착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등 공정별 요구 성능에 따른 고객의 제품 선택범위를 넓혔다.

H시리즈는 가반하중 25kg으로, 전세계에 현존하는 협동로봇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안정적으로 다루면서도 로봇의 무게



팔레타이징 작업을 수행 중인 H시리즈.

는 타사 제품의 절반 수준인 75kg에 불과하다. 6개 모든 축에 토크 센서를 탑재해 펜스 없이도 비좁은 공간이나 이동 로봇(모바일 로봇)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다양한 중량의 물품을 동시에 운반하거나 팔레타이징(물건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도 가능해 물류 및 섬유 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시리즈와 H시리즈는 이달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로드쇼'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전기차 특성 맞춰 트레드 패턴 적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포르쉐 브랜드의 최초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모델인 '타이칸'에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프리미엄 스포츠'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벤투스 S1 에보3e v'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의 특성에 맞춰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로, 강력한 주행성능을 구현하면서도 무게와 소음, 회전자항 등을 최소화해 타이칸의 성능을 가감없이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엔진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에 맞춰 트레드 패턴을 적용해 노면 소음을 최소화했다.

한국타이어는 크로스오버 SUV 모델 '미칸'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통해 포르쉐와 처음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2019년 슈퍼프리미엄 SUV 모델 3세대 '카이엔'에도 공급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번 공급을 통해 포르쉐가 최초로 선보이는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과도 함께 하며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밀그림 그려지는 서울 정비사업 현대 '흑석9' 대우 '흑석11' 눈독

하반기도시정비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과 11구역에 각각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분양가 논란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9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가 취소되며 일반분양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흑석9구역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흑석뉴타운은 하반기 정비사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인 만큼 대형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를 지난 2015년 4월 론칭하면서 매대가 3.3㎡당 4500만원 단지에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디에이치를 적용해 해당 생활권역에 최초 최대 유일 아이템을 적용함으로써 선택된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가장 큰 사업장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디에이치한남'을 적용한 바 있다. 흑석9구역은 지난 2017년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에서 내세웠던 설계가 불가능해지자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장 선거가 있는 다음 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흑석11구역은 대우건설이 수주 의지를 나타냈다. 대우건설은 최근 흑석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연합뉴스

**현대 '디에이치' 흑석9 적용 검토
대우, 흑석11 재개발 수주 절실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로 도전장
'분양가 갈등' 둔촌주공 총회 무산**

11구역 재개발사업에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를 내세운 수주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푸르지오 써밋을 입지, 분양가, 마감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조건을 만족하는 단지에만 적용해 왔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전무한 대우건설로서는 흑석11구역 수주가 절실한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서초구 반포3지구 재건축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경쟁을 펼쳤지만 시공권은 결국 삼성물산에게 돌아갔다.

흑석11구역은 지난달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통과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5층~

지상 16층, 25개동,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로 이어진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는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일 임시총회를 계획했지만 조합원간 갈등으로 취소했다.

이곳은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원간 갈등을 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3.3㎡당 2970만원을 제안했다. 조합은 최소 3550만원을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둔촌주공재건축의 일반분양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자칫하면 분양가상한제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KB증권,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금융자문

인수합병, IPO, 지배구조개편 등 포괄적 금융자문 네트워크 구축

KB증권은 지난 8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주)테크로스위터에너지·(주)테크로스환경서비스와 포괄적 금융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MOU체결식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왼쪽)와 김정철 테크로스위터에너지·테크로스환경서비스 총괄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테크로스위터에너지와 테크로스환경서비스는 순수·초순수와 같은 공업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 하수 재이용 등의 수처리 사업과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대기오염 방지사업,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업개발, 설계·시공·운영을 하는 종합환경기업이다.

KB증권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테크로스위터에너지 및 테크로스환경서비스와 함께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투자 ▲기업공개(IPO) ▲기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왼쪽)와 김정철 테크로스위터에너지 및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총괄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업지배구조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등의 부분을 주관하고 금융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은 전국 기업금융 커버리지 조직인 CI B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라며 "고객사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종합환경기업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좋은 파트너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롯데건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본격 분양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전용 21~97㎡, 1163가구

롯데건설은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상계동 95-3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총 14개 주택형 타입 중 일반에는 ▲21㎡ 1가구 ▲39㎡ 11가구 ▲52㎡A 17가구 ▲52㎡B 17가구 ▲59㎡A 190가구 ▲59㎡B 137가구 ▲84㎡A 210가구 ▲84㎡B 85가구 ▲84㎡C 38가구 ▲97㎡A 15가구 등 10개 타입이 공급된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롯데건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85㎡ 이하 97%)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앞뒤로 서울 4대 명산으로 불리는 수락산과 거북바위로 유명한 불암산이 있으며, 물놀이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된 수락산 지구공원, 불암산 둘레길

(18km) 등 집 앞에서 마음껏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1일 해당 1순위, 22일 기타 1순위 청약 접수,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진행되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호반그룹 덕평CC 'H1클럽'으로 리뉴얼 오픈

호반그룹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골프장인 덕평CC를 전면 재단장해 새 이름인 'H1클럽'으로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86년 개장한 'H1클럽'은 코스 변경 외에 그늘집과 VIP 라커룸을

새로 만들고, 로비와 사우나 시설을 개선했다. 8264㎡(2500평) 규모의 최고급 클럽하우스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호반그룹은 새 이름 H1 중 'H'는 명예(honor), 유산(heritage), 상류사회(high society) 등의

앞글자에서 따왔으며, 숫자 '1'은 첫째나 으뜸을 뜻하는 넘버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H1클럽 관계자는 "H1클럽은 뛰어난 접근성과 자연 친화형 골프장으로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며 "새로운 BI와 함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국민은행, 국내 첫 5억유로 커버드본드 발행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
발행금리 연 0.052% 결정

KB국민은행은 지난 8일 5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다. 발행금리는 5년 유로화 스왑 금리에 40bp(1bp=0.01% 포인트)를 가산한 연 0.052%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피치로부터 최고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아 높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내 흥행에 성공했다. 최종 가산금리는 총 20억 유로를 상회하는 주문을 확보하며 최초 제시한 금리(이니셜 가이던스) 대비 10bp 가까이 절감된 40bp로 결정됐다. 쿠폰금리는 제로(0)금리 수준인 0.052%로 확정됐다.

KB국민은행은 2014년 '이중상환청

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커버드본드법) 시행 이후 국내 최초로 법제화 미달리 및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유로화 커버드본드도 최초로 발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발행사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외화 4건(USD 11억·EUR 5억), 원화 7건(2조1200억원)의 법제화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조달된 이번 발행 자금은 '지속가능 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조달 자금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은 BNP파리바, 시티그룹, CA-CIB, HSBC, JP모건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KB증권이 보조간사(Co-Manager)로 역할을 수행했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서유럽 87% ▲동유럽 11% ▲아시아 2%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株를 향한 엇갈린 시선 “모멘텀 없어 투자매력 ↓” vs “지나치게 저평가”

주요은행주 한달간 변동률 -12.27%
2분기 실적 전년비 감소 전망 지배적
추가충당금 충분히 감내 가능 의견도

하반기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뉘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비판론과 유동성과 배당이 불려온 기대감에서 비롯된 낙관론이 동시에 나온다. 주도주 자리를 차지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평가되는 은행주의 소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주는 최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은행주 7종목의 전날까지 최근 한달 간 변동률은 -12.27%였다. 최근 은행권 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무풍지대로 평가되며 상대적으로 양

〈주요 은행 7종목 주가 하락률〉

은행명	주가 하락률(%)
KB금융	-8.25
하나금융지주	-13.69
신한지주	-13.77
우리금융지주	-12.44
기업은행	-16.02
BNK금융지주	-10.75
DGB금융지주	-12.27

*최근 한달간 /한국거래소

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KB금융이 -8.25%로 가장 선방했다.

기업은행이 16.02%의 내림세를 보이며 가장 저조한 은행주로 꼽혔다. 잇따른 유상증자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추경안에 4845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증자금액이 포함됐다. 올해 벌써 4번째다. 3차배정 유상증자로 이뤄져 소액주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

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KB금융과 함께 은행주 4대장으로 꼽히는 신한지주(-13.77%), 하나금융지주(-13.69%), 우리금융지주(-12.44%) 역시 모두 10% 이상이 빠졌다. 개인투자자는 같은 기간 5000억원에 가까운 은행주를 사들였다. 2076억원 어치를 사들인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1575억원), KB금융(744억원), 우리금융지주(225억원) 순으로 매수했다.

부진 여파는 2분기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깊어지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가격 불안정성이 커질뿐더러 금융 건전성도 훼손돼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금리하방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은 그에 따른 마진 훼손을 입게 된다. 그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은행주에 대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잇따른 사모펀드 투자손실에 따른 일회성 비용도 추가적인 위험요소로 꼽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주가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부동산 관련 규제 이슈가 계속되는 한 당분간 은행주에 대해 보수적 접근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는 정반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수적 충당금 적

립에 따라 기말 혹은 내년 상반기 배당성향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실적이 감소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모펀드 손실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많아야 1000억~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대출을 내준 뒤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예상되는 부실 채권을 미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실무자에 2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서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은행주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가 지나치게 반영돼 주가가 낮게 책정돼 있지만 2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맞춰 많게는 100%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허인, 코로나 조기종식 응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KB국민은행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연대 메시지
외교부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

KB국민은행은 허인 행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과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개인 위생관리를 코로나19를 이겨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세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허 행장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김연희 대표파트너의 지명을



허인 KB국민은행장(가운데)이 글로벌사업그룹 직원들과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민은행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글로벌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대표 글로벌기업인 최기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 이성열 SAP코리아 대표이사,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허 행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이 국민들과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바란다”며 “KB국민은행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상미 기자 smahn1@

한화건설 안전사고 방지 ‘포레나 안전도어’

가정서 발생한 손끼임 사고 45%
틈 없는 비노출형 경첩 개발 완료

한화건설은 9일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도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사고 총 8936건 중 45.2%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가정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였으나, 미관 및 시공 절차상의 이유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화건설은 손끼임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1년간 안전도어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문과 문틀사이 틈이 발생하지 않는 비노출형 경첩

개발을 완료했다.

기존제품 대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문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는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레나 안전도어는 ‘에이치쿠도스’와 협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신규 판로 개척에도 양사가 적극 협력해 새로운 동반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레나 안전도어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포레나 영동포’를 시작으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포레나 단지에 적용된다.

한화건설은 30만회 개폐테스트를 통



한화건설이 개발한 포레나 안전도어 이미지. /한화건설

과한 포레나 안전도어 상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이다.

한화건설 유통상 건축사업본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기존 샤워부스 및 중문 안전유리, 대피공간 세이프커어 사인에 이은 이번 ‘포레나 안전도어’의 개발을 통해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자신”

IPO 간담회

제놀루션

“유전자 분야 글로벌 리더 도약”
세계 30여개 국가 대리점 확보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는 제놀루션이 큰 폭의 외형성장을 자신했다. 제놀루션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유전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며 코스닥 이전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을 밝혔다.

2006년 설립된 제놀루션은 분자진단을 주심으로 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유전자 간섭(RNAi) 합성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코넥스 시장엔 2015년 상장했다. 이후 성장성특례제도를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신용인증업체 이크레더블로부터 A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기회가 됐다. 바이러스와 추출 전문 기술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주력사업인 체외진단 부문에서 핵산 추출제품의 주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 기록한 매출액 33억원은 지난해 전체 매출(38억원)의 83.6% 수준이다.

김기욱 대표이사는 “핵산 추출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시약의 매출액도 비례하는 구조”라며 “올해 매출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295억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놀루션의 핵산 추출장비를 사용할 경우 시약 역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보다 7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김 대표는 자사의 핵산 추출장비의 강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작은 크기, 월등히싼 가격, 빠른 속도다. 그는 “한



김기욱 제놀루션 대표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시간에 96개 샘플을 처리하는 경쟁사 장비와 달리 제놀루션 제품은 15분이면 48개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19 진단 건수 150만건 중 절반 수준인 75만건 이상이 우리 제품을 이용해 RNA를 추출했다”고 강조했다.

제놀루션은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대리점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수익률도 강점으로 꼽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제놀루션의 올해 영업수익률은 50%에 달한다. 이성희 전무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3년은 코로나19 이슈가 배제되더라도 영업수익률 4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농명 생명공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초 연구를 위해 우선 10mg 연구용 합성서비스를 공급하고 이후 사업화를 위한 톤 단위 공급 시설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공모 주식 수는 총 80만주다.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96억~112억원이다. 8~9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오는 14~15일 일반 청약용 거처 24일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한다. /송태화 기자·송유진 인턴기자

제3회 베지노믹스페어-비건페스타

VEGAN Festa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산업기자재&식품기기 | 기타

2020.8.7.(금)~8.9.(일)

SETEC

주최 **Excom**
후원 **sba**



패션업계 생존전략, 대형사는 자사몰, 中소는 무신사

〈패션 플랫폼〉

삼성물산패션부문, 온라인에 초점 매장 정리하고 온라인전용 선보여 신성통상, 무신사 전용 브랜드 론칭 “새 동력 발견, 소비자 확대 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패션 기업이 온라인 사업에 힘을 실으며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확산 추세에 맞춰 백화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채널 입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 온라인 몰을 강화하고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 입점은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온라인 채널이 발달하면서 2030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백화점에서 할인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로 이동하면서 그 효과가 줄었다. 기업이 값비싼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사라진 것. 이에 패션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 채널 입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삼성물산패션부문은 빈폴스포츠 사업을 정리하고, 빈폴 액세서리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



최근 론칭 1주년을 맞이한 삼성물산 패션부문 엠비오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무신사 등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행 중이다. 지난달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빈폴스포츠 사업을 내년 2월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100여 개의 매장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빈폴스포츠 사업 철수는 지난 3~4년간의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직격탄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3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온라인 강화도 진행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50여 개의 빈폴 액세서리 매장도 정리하고, 온라인 판매만 진행한다. 지난 2017년 아동복인 빈폴키즈를 온라인 브랜드로 전환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남성복 엠비오도 온라인에서만 전개하고 있다. 빈폴 키즈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리론칭 후 1년 만에 매출이 30% 이상 올랐다. 빈폴 레디스에서도 온라인 전용 라인을 선보이며 온라인 시장 강화에 주력 중이다.

온라인몰 SSF샵 차별화에도 나섰다. 소비자가 구매할 상품을 집에서 직접 입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홈 피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3시 이전까지 결제하면 저녁 10시 전까지 배송이 되는 퀵 배송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LF는 여성복 브랜드 ‘옛코너’를 온라인 브랜드로 전환했다. 자사몰인 LF몰에 자사 브랜드 외 브랜드를 적극 입점, 거래 규모를 늘리며 종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키우고 있다.



신성통상이 무신사 전용 브랜드 WML을 론칭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신성통상

올 1분기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11%에서 15%까지 상승한 한섬의 경우 온라인 매출 규모를 2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섬은 ‘레어뷰’를 자사 온라인 편집숍 EQL스토어 전용 브랜드로 내놓으며 온라인전용브랜드 추세에 뛰어들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도 온라인 전용 브랜드 지켓, 텐먼스를 내세웠다. 텐먼스는 출시 일주일 만에 2개월 치 물량이 완판됐으며, 월평균 매출은 3억 원을 넘겼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 론칭을 통해 즉각적인 반전효과보다는 새로운 동력 발견과 소비자 확대에 의의를 두고 있다.

패션업계가 백화점에서 눈을 돌린 대

상은 자사몰 뿐만이 아니다. 바로 MZ세대가 즐겨 찾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다. MZ세대 소비자가 언택트 소비에 익숙해진 만큼 온라인 채널이 핵심 유통망이 된 것.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1~4월 온라인 패션 편집숍 이용자는 86% 늘었다. 반면에 백화점 패션 관련 매출은 해외명품을 제외하고 5개월 연속 꾸준히 내림세다.

특히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성장이 빠르다. 무신사는 5년간 매출이 6배 넘게 늘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 219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83.2% 증가한 493억 원이었다. 연간 거래액 9000억 원에 회원 수는 600만 명이며 입점한 브랜드는 35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신성통상은 지난달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더블유엘엘’을 무신사 전용 브랜드로 새롭게 론칭했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의 패션 브랜드 소비가 대부분 무신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사몰에 집중 투자할만큼 규모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에서는 오프라인 채널보다 무신사를 비롯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에어부산, 131일 만에 국제선 운항 재개

인천~中 선전 주 1회 운항
다음달 닝보 재운항 준비

에어부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제선 운항 재개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9일 오는 17일부터 인천-선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이 인천-선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게 되면 국제선 재운항은 지난 3월 9일 운항 중단된 이후 131일만이다. 에어부산의 인천-선전 노선은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50분 출발해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오전 11시 20분 도착하며, 선전에서는 오후 12시 50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5시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15분 도착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방역확인증을 획득했으며, 오는 17일부터 매주 1회 운항으로 중국 항공 당국과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인천-선전 노선의 항공편 예약은 다음 주부터 예약센터를 통해서 받을 계획으

로, 정확한 예약일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향후 중국 항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 2회까지 증편도 고려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인천-닝보 노선 재운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정부의 김해공항 국제선 입출국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김해공항에서도 재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내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안전 정책을 인천-선전 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탑승구 앞 열화상 카메라·자동 손소독기 비치 ▲발권 카운터 손님 간 거리두기 ▲탑승권 셀프 인식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내 다중이용시설물 상시 소독 등을 진행해, 기내에서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코로나도 못 꺾은 ‘웨딩의 꿈’... 결혼정보업체 가입 ↑

3개월간 신규 회원 가입 24% 증가
“개인 시간 늘면서 결혼 관심 늘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선남선녀들의 ‘인연 찾기’는 막지 못했다.

오히려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회원 가입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3월 당시 주춤하다 4~5월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회복하더니 6월엔 회원 가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듀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3월에는 줄었던 회원가입 추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모임이 취소되고, 재택근무로 개인 시간이 늘어나

며 이 시간을 활용해 소개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안정감을 찾고자하는 수요도 늘어나면서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학교 소비자심리학과 이영애 교수는 “너무 고립되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고독감이 커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증가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가입 문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모델들이 클라우드 VR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호캉스하며 VR 게임 즐기세요”

서울웨스틴조선호텔서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과 손잡고, 여름 휴가철 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심에서 호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실감나는 VR 서비스를 객실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 투숙객은 최신형의 VR기기를 제공받아 객실에서 클라우드VR 게임과 아이돌, 공연, 여행 등 1300여개에 이르는 VR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VR 게임은 고성능 PC와 케이블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선 HMD만으로 고사양의 실감형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때문에 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새로운 포맷의 VR 게임이 가능하다.

이달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클라우드 VR 체험 서비스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공하는 ‘2020 여름 패키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바캉스 메이크업 수업, 스카이라운지 칵테일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패키지를 신청하지 않은 투숙객도 호텔 18층 스카이라운지에 마련된 클라우드VR 체험존에서 동일한 클라우드VR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웨스틴조선호텔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및 관광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에는 최신 일체형 무선 HMD 단말이 제공된다. 언더워터, 블랙바이퍼, 마이 리틀세프, 인투더리듬 등 클라우드VR 게임 15종과 아이돌, 3D영화, 공연, 국내·해외 여행 등 1300개에 이르는 VR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김나연 기자 silkni@

개국 5주년 공영쇼핑, 1조·100억... 사상 첫 흑자 도전

(취급액·흑자)



최창희 대표, 5주년 성과·계획 발표
상반기 취급액 4545억 기록 '순항'
연 매출 500억... 현실화 총력
모바일라이브커머스 내년 시작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공영쇼핑

공영쇼핑이 개국 5주년을 맞은 올해 '취급액 1조·흑자 100억' 도전에 나섰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송출수수료 현실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 추진 ▲직매입 100% 실현 ▲디지털 체제 전환 가속화 ▲단독 사옥 건립 추진 등 '미래 5년 계획'도 밝혔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국 5주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공영쇼핑은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도 1~6월 사이에 취급액

4545억원과 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로 하반기에 5000억원 이상의 취급액을 올린다면 올해 1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급액은 TV홈쇼핑에서 실제 팔려 나간 제품의 액수를 합한 것으로 여기

에 판매수수료를 곱하면 매출액이 된다. 공영쇼핑의 수수료율은 20.7%다.

'중소기업·농수산물 100% 판매'를 미션으로 2015년 개국한 공영쇼핑은 지난해까지 415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공적 성격의 TV홈쇼핑으로 판매 수수료가 다른 채널에 비해 낮고, 채널 경쟁 심화로 인한 높은 송출 수수료 등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월별 흑자로 돌아서더니 12월까지 55억원의 이익을 거두며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폭이 -44억원까지 줄었다.

남은 하반기까지 장사를 잘 하면 개국 5주년을 맞은 올해에 '흑자 원년'을 기록하는 셈이다.

최 대표는 "올해 기대하고 있는 '취급액 1조'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이고, 고객 증가는 곧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등 공영쇼핑이 선순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3년의 임기 가운데 2년째를 보내고 있는 최 대표는 미래 방향도 함

께 제시했다.

그는 "송출료는 매년 늘어 연간 500억원 가량을 쓰고 있다. 송출수수료 현실화가 시급하다.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영쇼핑을 의무송출 채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곧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모색하고 있는 신사옥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공영쇼핑은 매년 5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건물주에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원 공급 문제로 방송사가 난 이후 사옥 건립 필요성이 급부상한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옥 건립 계획을 수립해나간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사옥 문제를 내 임기 동안에 무리하게 추진할 욕심은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 디자인해야 미래에 걸맞는 바람직한 사옥이 될지를 먼저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쇼핑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기획과 방송제작을 1명이 담당하는 MPD제도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콜센터 디지털화, 스마트컨텐츠 등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최 대표는 "TV홈쇼핑 대부분은 업체에 재고부담을 떠넘기는 위·수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공영쇼핑은 매년 직매입 비율을 10%씩 늘려 '직매입 100%'를 실현해 중소기업들의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신제품 론칭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영쇼핑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쇼핑 엔터테인먼트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국민과 예비유니콘 기업 15곳 선발

66곳 접수... 최종평가 30곳 추려
선정기업에 특별보증 최대 10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15곳을 국민심사단 등과 함께 뽑는다.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 선정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평가를 10일에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종으로 뽑힐 15개 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지난 5월 접수 마감한 결과 66개사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앞서 중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쳐 1차 서류평가와 2차 기술평가 및 3차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최종평가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주렸다.

최종평가 대상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및 데이터·네트워크·에이아이(DNA)기반의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이 12곳(40%)으로 다수였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10곳(33.3%), 일반 제조업 분야 5곳(16.7%) 등이었다.

대상기업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262억원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자유치한 기업이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억원을 넘어선 기업도 8곳이었다.

또한, 최종평가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BBB등급 이상인 기업이 56.7%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곳이 많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기업도 21곳으로 상당수였다.

최종 평가에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특별보증 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사회환원·공헌 가능성을 심사한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업별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위해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심사단은 국내 유명벤처캐피탈(VC) 대표와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15명과 크래프톤의 장 장병규 국민심사단장 등 60명의 국민심사단이 함께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정수기+인덕션 '조리정수기' 인기

하우스룩, 누적판매 1만대 돌파

하우스룩 조리정수기가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우스룩은 조리정수기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8월 처음 출시된지 4년여만이다.

조리정수기는 국내에서 구내 식당을 중심으로 보급되며, 해외 수출까지 늘려왔다. 지난 3월 기준 설치 장소만 3000개소를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OEM 구매와 함께 개인 구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리정수기는 정수기와 인덕션을 결합한 제품으로 '국가대표 브랜드K'에도 선정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편리미엄' 가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다, 정수기와 비교해 가격도 저렴해 1만대 판



조리정수기. /하우스룩

매 달성에 성공했다는 게 하우스룩 설명이다. 지난 5월 리뉴얼을 통해 화력을 30% 강화하는 '터보'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중소 우수제품 한자리에 중기부, 오늘 마케팅페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마케팅 페어'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소비재의 종합전시와 판매 기획전인 '2020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케팅 페어'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주요 행사내용은 ▲행복한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야외광장 특별판매 기획전(목동) ▲로비 공간에 우수 중기제품 전시·체험·판매 및 한성패밀리세일(코엑스 B홀) ▲그립(Grip)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H몰·아임스타즈 특별판매 온라인 기획전 등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일자리 창출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환급

중진공, 이달말까지 환급 접수

경북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 골드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이자 4600만원을 환급받았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후 직원 8명을 새로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후 골드팩은 5명을 더 채용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나 수출 성과가 좋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일자

리·수출 성과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성장을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 창출 환급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p이고 수출성과 환급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p 수준이다. 환급은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내에서 가능하다.

고용창출 인정 기준은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수출성과는 실적에 따라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으로 나눠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오순영 한컴컴퓨터 CTO가 지난달 24일 서울시 양재 시hiba센터에서 2020 WAIC 강연을 녹화하고 있다. /한컴

오순영 한컴CTO, WAIC 2020 연사 참여

한글과컴퓨터(한컴)는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오순영 전무가 세계인공지능회의(WAIC)에 연사로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시가 주최하고 올해 3회째를 맞는 'WAIC 2020'은 '지능적인 연결성, 나눌 수 없는 공동체'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550여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사전녹화한 후 9일부터 11

일까지 WAIC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순영 한컴 CTO는 국내 주요 지자체들이 한컴의 AI 콜센터 시스템인 '한컴 AI 체크25'를 활용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I 콜센터 기술을 의료, 복지, 공공, 교육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대학 2학기 수업방식, 온라인 중심 오프라인 병행 '무게'

(브랜드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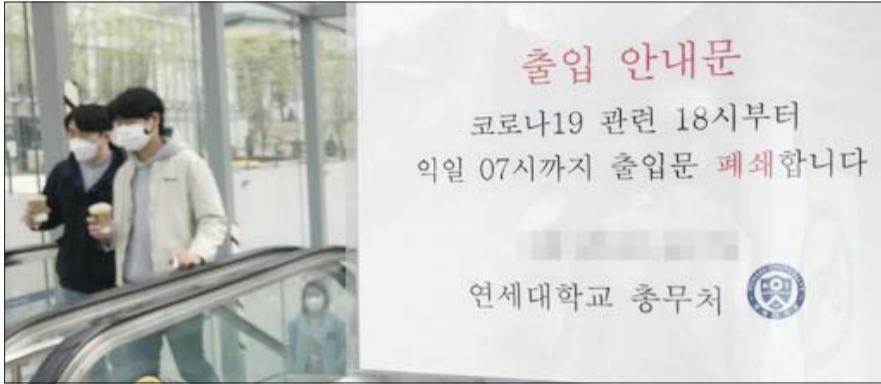
수업 질 개선 위해 인프라 확충 주력

코로나 확산세 예측 불가 상황에 단계별 학사운영안 구성 대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이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브랜드리닝'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대는 확산세에 따른 단계별 학사운영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특히 대학가는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수업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면 수업 일부 확대,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과 강의실 제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5단계 학사운영(안)을 마련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50미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



지난 5월 연세대 교내에 '코로나19 관련 출입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메트로신문 DB

면 수업 병행하는 'Phase 3'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학부 실험실습, 실기 수업과 대학원 수업은 교육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 필요 시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학부 이론수업은 소규모 강의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대면 수업을 하고, 필요한 시그를 나눠 순환 출석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이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도 가능하다.

중앙대 관계자는 "하루 확진자 규모

에 따라 현재 상태를 3단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을 예고했지만 2학기 개강 이후 확산세가 심화하거나 약해질 경우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혹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양대와 연세대도 2학기 비대면·대면 혼합 강의 방식을 도입했다. 한양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학부 수업운영 안내'를 통해 수강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이론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되, 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

을 밝혔다.

연세대도 개별 교과목을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학점 수업의 경우 '2시간 온라인+1시간 오프라인' 또는 '1시간 온라인+2시간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수강 정원 71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만 감염병 사태가 악화할 경우 모든 수업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지대도 2학기에도 1학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되, 실습·실습·실기 교과목은 대면수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도 비대면 강의를 올해 2학기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2학기에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대학을 주축으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고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강의의 최대

한계로 꼽힌 '강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앙대는 온라인 강의 전용 스튜디오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교수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촬영하면 수업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강의 받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성적 등 온라인 강의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고려대도 2학기에 강의실에서 곧바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등 인프라를 구축 공사를 하고 있다.

연세대는 온라인 강의 운영 지침을 다듬었다. 2학기 온라인 수업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워드·PDF자료 제공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부도 그간 20%로 제한했던 원격 수업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대학도 이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단국대, 등록금 반환 동참... 1인당 최대 54만원

1학기 등록금 10% 학생 반환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단국대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열에 따라 1인당 34만에서 최대 54만원씩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단국대(총장 김수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수혜 대상 학생 약 2만 1000명이다.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77억 7000만원이다.

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



단국대 상징탑 /단국대

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에 앞서 대학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며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 등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각종 장학금도 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담지하고 있어 예비적으로 비축해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학생 약 2만 1000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약 34만원에서 최대 약 54만원을 돌려받는다.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게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전국대학 계약학과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

/인천대

전국 44개 대학, '계약학과' 관리 나선다

전국대학 계약학과 관리협의회 발족 계약학과 질 관리·제도개선 등 추진

전국 44개 대학이 '계약학과' 질 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천대·한국산업기술대·순천향대·명지대·공주대·한밭대 등 전국 44개 계약학과 운영 대학이 지난 8일 '전국대학 계약학과 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회장교로는 인천대가 선출됐다.

'계약학과'는 산학협력활성화 및 '선취업 후학습'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대학교와 산업체간 협약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2004년 계약학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만에 발족된 협의회는 '계약학과 담당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계약학과 질 관리 제고, 계약학과 제도개선 연구'를 주된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한국석유관리원, 업무협약 공동연구·인재양성 등 상호 협력 추진

서울과학기술대는 7일 한국석유관리원과 '기술인력 양성 및 학술·연구 진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 ▲교육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 상호교류 및 양성 ▲지역사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우리나라 석유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유대체연료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관계를 맺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오른쪽)과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공동 연구 및 인력양성 등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명예이사장이 수년간 공금 40여억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교육청은 9일 '자율학교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전국대 학생들,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표

전공수업 연계 7가지 정책 제안 발표

"이런 게 바로 시민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이지요."

전국대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간판식 판매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로 활용하거나, 시각장애이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종료 전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 생활을 위한 독창적 정책 아이디어들이다.

전국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 30여명

이 7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 수업과 연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열고 7개 팀으로 나눠 진행한 7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전국대 학생들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시범 실시 ▲교통혼잡 해소 위한 AR(가상현실) 기술 이용한 '가상의 택시 승차대' 설치 ▲시각 장애인에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방안 등 지역민원 문제와 생활불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놨다. /이현진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alton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코로나 극복 만전’ 쌍용양회 노조, 임금교섭 사측에 위임
 쌍용양회는 노동조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9일 밝혔다. 쌍용양회는 상생과 화합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1964년 노동조합 창립 이후 56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최동환 노조위원장과 홍사승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용양회



예탁원-부산중기청, 금융업무 역량 강화 지원에 맞춘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예탁원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업무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장(왼쪽)이 김문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과 포즈를 취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코오롱그룹, 코로나에도 비대면 봉사활동 주간 진행
 코오롱그룹은 9일 코오롱인의 봉사주간 ‘드림 파트너스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드림 파트너스 워크는 201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나눔 실천 행사다. 올해에도 전국 사업장 임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1일부터 14일까지 이어간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택했다. /코오롱그룹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홈플러스는 임일순 사장이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임사장은 로고에 “힘내라 대한민국! 홈플러스와 함께 코로나 극복!”이라는 문구를 더해 우리나라 신선 농가와 중소 제조사들을 응원하는 뜻을 전했다. /홈플러스



한돈자조금, 언택트 한돈 다이어트 ‘돈기부어’ 시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돈 다이어트 온라인 체험단 30인을 선정해 4주간의 비대면 홈 트레이닝 ‘돈기부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한돈자조금에서는 체험단 모집 후 선정된 총 30여명의 참가자들과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발대식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는 현 보디빌딩 국가대표이자 다년간 한돈자조금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국현 트레이너가 참여한다. /한돈자조금

면역력과 여름철 보약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력저하나 무기력증, 만성탈수, 근육경직, 냉방병, 열사병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면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땀 배출이 많아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선 신선한 제철 과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 하루 2리터(L) 이상의 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름철 건강관리가 한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몸이 냉해지고 양기가 떨어지기 쉬워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동병하치(冬病夏治)’라고 하는데, 동병하치란 겨울의병

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는 뜻으로 여름에 양기를 미리 길러둬야 겨울철 차가운 성질을 지닌 감기나 천식, 비염, 알레르기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혹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지 않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한기가 침범하기 쉽고, 면역력이 낮을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므로 면역력 강화와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병하치 치료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초복·중복·말복)에 총 3차례로 나눠 실시하며, 여름철 대표 보약인 ‘공진단(拱辰丹)’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진 처방이라 하여 ‘황실의 명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많은 의가들에 약효를 인정받아온 한방 3대 명약 중 하나로 집중력 향상, 기혈보충, 기혈작용, 보혈작용, 원기회복 능력이 우수하며, 체질 및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위역립이 세의득효방에 기재한 자료에 따르면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을 가루로 만들어 꿀로 반죽한 뒤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게 되어 있다. 공진단이 고가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때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멸종위기의 동물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쉽게 구하기 어렵고, 워낙 고가인 탓에 사향대신 목향이나 짐향을 첨가해 공진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진단 구매에 앞서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수입인증을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전문 의사가 직접 제한한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단기간에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면 원방공진단을, 고가의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향 함량을 낮춘 실속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갑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코로나 후 신종 전염병 대비 전략 필요”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KPC CEO 북클럽 강연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라는 팬데믹이 온 것처럼 코로나19도 사실상 예측된 전염병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로 곧 올 것이다. 메르스 이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다. 이제는 다른 전략을 마련할 때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 참석해 “과거 전염병 시대엔 위생운동, 만성질환 시대엔 생활습관 개선과 현대의학으로 대응했지만 코로나19같은 신종 전염병이나 치매, 우울증 등 퇴행성질환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전염병과 퇴행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 기술을 높이고,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미래 의료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스마트 거울을 통해 매일 거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AI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해 매일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

데이터를 축적해 개인 맞춤형 진단 기기로 사용하거나, 변기에 버려지는 소변과 대변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스마트 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의료 관리 시스템도 소개했다. 지금은 수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의사가 매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 발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이뤄지면 대형병원에서는 재생, 이식 등 고난도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의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사회구조도 중요하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65~75세의 노인인구가 일과 자녀 양육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종식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19 발생 초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말이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낙관론자들의 경우 올해 가을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다시 가속화되는 양상이어서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부음

▲이명수(뉴욕대 로스쿨 미국아시아법 연구소 선임위원)씨 모친상, 홍지훈(미국 화이트앤케이즈 로펌 서울지사장)씨 장모상, 이상완(전 삼성전자 사장)·상운(효성 부회장)씨·홍지수(위워크)씨 조모상=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27-7590

▲김동국(대신증권 신탁사업부 부장)·박해석(삼성전자 플래시PE 수석)씨 장모상=6일 오후 8시30분,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42

▲오훈(한국세무사회 홍보팀장)씨 장모상=8일 오후 1시30분,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02)2290-9442

▲최용한(임실군 농촌활력과장)·용명(전북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씨 부친상, 김금재(다인건설 실장)씨 장인상=8일, 임실군보건의료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63)644-3190
 ▲곽복률(권은희 국회의원 보좌관)씨 모친상, 조인숙(광주시청)씨 시모상=8일 오전 10시, 전남 강진군 산림조합추모관, 발인 10일 오전 10시. (061)430-5444

화훼농가 돕기 챌린지 등 코로나19 극복나선 유통가

유통가 CEO, 캠페인 적극 동참

최수정 한국코카콜라 대표
‘플라워 버킷 챌린지’ 화훼농가 도와
체육대상 수상자들에게 꽃다발 전달

이효율 풀무원 총괄 CEO
‘스테이스트롱 캠페인’ 적극 동참
“코로나19 종식에 임직원 한마음”



최수정 대표가 9일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국 코카-콜라



9일 이효율 총괄CEO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 /풀무원

유통채널 CEO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수정 한국 코카-콜라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한다. 최 대표는 비대면 개별 시상식으로 진행된 올해 25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수상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다.

올해는 감염병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4년간 땀 흘리며 노력해온 선수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해다. 이에 최 대표는 선수들을 위로

하고자, 최우수수상 오상욱 (펜싱), 우수수상 조구함 (유도), 강재영 (양궁), 남자휠체어농구대표팀 등 총 30여 명의 25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수상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기로 한 것이다.

최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 태극전사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꽃을 드리게 됐다”며 “코카-콜라가 화훼 농가를 위한 작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 속 소중한 순간을 통해 힘든 시간을 잘 헤쳐나가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최근 각종 모임과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면서 판로가 막힌 화훼 농가의 꽃·식물을 구매하는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캠페인에 참여한 뒤 다음 참가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문석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도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도 고객에게 안전한 휴식 제공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장 직원들에게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꽃다발을 건넬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번 챌린지 동참을 통해 화훼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조운성 GS리테일 대표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조창현 신세계사이먼 대표를 추천했다.

같은날 풀무원은 이효율 총괄 CEO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가 시작한 인종 릴레이로, 유례없는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자는 메시지다. 두 손을 모아 비누 거품을 내 씻고 있는 로고와 ‘Stay Strong’ 문구로, 개인위생을 준수하자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캠페인 로고와 직접 만든 응원 메시지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된다. 이때 바통을 이어갈 3명을 지목한다.

이효율 총괄 CEO는 김연희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코리아 대표파트너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 나종호 한국강소기업협회상임부회장,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최홍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대학교 부총장을 추천했다.

이효율 총괄 CEO는 “전 세계가 큰 위기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풀무원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제주용암수 150만병 판매... 中·베트남서 인기

오리온, 판매개시 한달만의 성과
칼슘·칼륨 등 미네랄 성분 풍부



‘제주용암수’ 제품 3종 이미지. /오리온

오리온은 ‘오리온 제주용암수’의 온·오프라인 전 채널 판매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150만 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국내 시장에서 몇 안 되는 경수 가운데 하나다. 오리온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주용암수를 판매하고 있다.

오리온 그룹은 지난 5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테크노파크와 상생 협약 및 용암해수에 대한 원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기존 가정배송 서비스 외에 전국의 일반 슈퍼마켓과 롯데마트, GS슈퍼마켓 온라인몰인 GS Fresh 및 쿠팡 로켓배송, G마켓, 옥션,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 중이다. 추후 대형마트, 이커머스 채널 등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계속 확대해 판매량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연수 위주의 국내 물 시장에 ‘경수’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리를 개척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도는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의 1L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연수(경도 0~75mg/L), 적당한 경수(경도 75~150mg/L), 경

수(경도 150~300mg/L), 강한 경수(경도 300mg/L 이상)로 구분한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경도 191.9mg/L, 경수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경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 녹아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은 물로 인식되고 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의 주요 미네랄 성분으로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 62mg/L, 나트륨 배출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주는 칼륨 22mg/L,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탁월한 마그네슘 9mg/L 등을 담았다. 부드러운 목 넘김과 뛰어난 물맛도 주요 특징이다. 용량은 330mL, 530mL, 2L 3종을 판매하고 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등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중국에서는 ‘오리온 제주용암천’이라는 제품명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2030세대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원은미 기자

쿠팡, 코로나19 안전감시단 2400명 투입

로켓배송센터서 체온측정 등 역할

쿠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로켓배송센터에 2400명 규모의 안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감시단은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방 프로세스를 지키도록 돕는 역할이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안전감시단은 활동을 시작한다. 버스 안전감시단은 통근버스에 오르는 모든 직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의 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공정 안전감시단은 물류센터 출입구와 식당, 휴게실 등 공용공간을

비롯해 직원들의 주요 동선과 각 공정에서 거리두기 실천과 손 소독제 사용을 독려한다.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단 한 명의 추가 감염 없이 운영을 재개한 덕평 물류센터 한 곳만 해도 300명에 달하는 안전감시단이 활동중이다. 쿠팡 전체 물류센터의 안전감시단 규모는 약 1900명이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이 출고된 이후의 배송 단계에서도 안전감시단을 찾아볼 수 있다. 500여 명의 배송캠프 안전감시단은 쿠팡맨과 쿠팡 플렉스의 예방 조치 준수에 힘쓴다. 로켓배송의 전 과정에서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

이마트 ‘강원도의 밥상’ 밀키트 3종

이마트가 전국 팔도의 대표 음식을 피코크 밀키트(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 구성해 판매하는 제품)로 출시한다.

첫 시리즈로 ‘강원도의 밥상’ 밀키트 시리즈 3종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9일부터 피코크 밀키트 ‘강원도의 밥상’ 강릉식 짬뽕 순두부(2인분, 9980원), 원주식 장칼국수(2인분, 6980원), 영월식 청국장(2인분, 8980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밥상’은 강원도 지역 특색 한식 레시피를 담았으며, 향후 충청도,



피코크 강원도의 밥상 밀키트 3종 /이마트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특색을 살린 요리도 밀키트로 재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푸드 파스퇴르 ‘쾌변 콜라겐’ 선보여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발효유 ‘쾌변’을 리뉴얼하고 ‘쾌변 콜라겐(사진)’을 새로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업그레이드 쾌변은 신바이오틱 쾌변 시스템을 강화해 복합유산균과 식이섬유, 올리고당, 락투로스 등 프리바이오틱스를 대폭 늘렸다. /원은미 기자



전자담배 아이코스3 듀오.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美 FDA서 ‘위험저감’ 마케팅 인가

필립모리스, 일반담배와 차별성 강조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아이코스에 대해 ‘위험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FDA는 인가 이유로, 아이코스가 공중보건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이코스는 미국 FDA의 ‘위험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은 최초의

자 유일한 전자담배 제품이 됐다.

FDA의 결정은 ‘아이코스가 일반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흡연을 지속하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설명했다. 앞으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함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등의 정보 사용이 가능해졌다. /원은미 기자

건기식에 꽃힌 제약사... 4.6조 시장 도전장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연 평균 11% 성장
신제품 출시, 유통망 확대
건기식 전문 온라인몰 오픈

국내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건기식 브랜드를 앞세워 신제품을 출시하고, 전용 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추세다.

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1조6310억원에서 지난해 4조6000억원까지 확대되며 연평균 11% 성장했다. 제약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건기식 사업 확장에 앞다퉈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JW생활건강은 최근 건기식 새 브랜드 '마이코드' 신제품 3종을 처음 선보이며 마케팅 활동에 본격 나섰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이코드 신바이오



JW생활건강 '마이코드'



대웅제약 '세노메가'



종근당건강 '락토픽'

티스 유산균 100억'과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이코드 루테인시아잔틴&아스타잔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이코드 알티지 오메가3 1000mg' 등이 있다. JW생활건강은 이번 출시한 3종을 시작으로 멀티비타민, 칼슘제 등으로 제품라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W생활건강은 지난 5월 건기식 전문 쇼핑몰 '마이코드몰'을 오픈한 바 있다.

GC녹십자 역시 지난 달 건기식 브랜드 '건강한가'를 론칭하고 G마켓을 비롯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지씨 프리바이오틱스, 지씨 알티지 오메가, 지씨 멀티비타민 미네랄, 지씨 루테인 아스타잔틴, 지씨 홍삼, 지씨 아연 등이 있다.

대웅제약도 지난 4월 생활습관과 증상별 맞춤 건기식 6종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한데 이어 이달 혈압과 혈행 건강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세노메가 큐텐+'를 새롭게 출시했다.

CJ헬스케어가 사명을 바꾼 HK이노엔은 건기식 전문 브랜드 '뉴틴'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건기식 사업 확대에 나섰다. 뉴틴은 피로·면역관리, 스트레스관리 및 스피루리나, 비타민D 등 관리영역과 소재별로 나눠 21개 제품을 출시했으며, 앞으로도 남녀노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최적의 영양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뉴틴 시

리즈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달 자회사 유한건강생활이 백수오 건기식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원료로 만든 완제품을 독점 공급받고 판매권도 확보하게 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4월 건기식 브랜드 뉴오리진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며 건기식 사업 분야를 강화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12월 31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동영제'를 론칭하고, 피로개선 멀티비타민, 피부건강 향산화 멀티비타민, 기억력 개선 멀티비타민 등을 출시했다.

주요 제약사들 가운데 가장 성과가 뛰어난 곳은 종근당 그룹이다. 그룹 자회사인 종근당건강은 지난해 35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매출(1824억원) 대비 94% 성장했다. 주력 제품인 생유산균 락토픽은 지난해 2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 전년(800억원)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JW중외제약 여름 필수 '방수 탄력 밴드'

JW중외제약이 여름철 여행이나 야외 활동에 필수 아이템인 방수 탄력 밴드를 선보였다.

JW중외제약은 움직임이 많은 가벼운 상처 부위에 부착하는 '하이맘밴드 방수탄력'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하이맘밴드 방수탄력'은 고탄력·고밀도 우레탄 부직포 원단을 사용해 굴곡진 부위에도 들뜨지 않고 편안하게 밀착되는 밴드로 물이 닿아도 외부로부터 상처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멸균처리된 고품수 쿠션 패드로 밴드를 떼어낼 때 아프지 않으며, 살균제가 첨가되어 있어 상처 보호 효과도 뛰어나다. 특히 기본형, 대형, 손끝형, 발뒤꿈치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처 부위와 상황에 따라 골라서 쓸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수술' 고령·장애인 환자 삶의 질 ↑

환자 소장 일정부분 이용 방광제작
이동형 센터장, 약 300례 무항생제 수술



이동형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장(가운데)이 인공방광수술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이 인공 방광 수술로 고령, 장애인 방광암 환자들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방광암 역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수술 후 몸 바깥에 소변주머니를 차는 '회장도관 요로전환술' 대신 '인공방광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방광수술은 환자의 소장 일정 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 준다. 수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등산이나 골프, 성생활도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장애를 가진 환자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만족도가 높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방광수술을

집도한 이동형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장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인공방광수술을 통해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인공방광수술이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약 300례의 무항생제 수술 결과를 정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한림화상재단, 국내 첫 화상환자도우미 육성

치료·재활부터 심리적 회복 지원
6개월간 96시간 교육과정 수료

사회의 중간다리로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은 9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상경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전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화상 코디네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화상 코디네이터는 화상경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 화상 경험 전문가이다. 이들은 화상 급성기부터 재활 단계까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고, 화상 치료 및 재활부터 심리적 회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다.

한 화상경험자와 의료기관 및 지역

한림화상재단 화상 코디네이터 양성 아카데미는 화상경험자와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전담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림화상재단이 주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총 1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한림화상재단 화상병원학교에서 올해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96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이후에는 2021년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전국의 화상경험자와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롯데홈쇼핑 이색 여행 상품 레일크루즈 해랑

롯데홈쇼핑 국내 인기 여행지 상품 확대

롯데홈쇼핑은 오는 10일부터 '호텔식 기차 여행', '유명 관광지 항공권' 등 이색 국내 여행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6월 국내 여행상품 판매(주문건수 기준)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지난 5월 판매한 롯데호텔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L7 숙박권'은 방송 종료 전 매진됐고, 이달 3일 '골든 툴립 해운대' 숙박권도 목표보다 3배 이상 판매됐다. 이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달 12일 오후 6시 30분에는 국내 최초 호텔식 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의 2박3일 전국일주권을 판매한다. 지난 달 17일 롯데홈쇼핑이 코레일관광개발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 서울을 지나 순천만, 부산 해운대 등 인기 관광지를 순회하며 지역 명소와 음식점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이다.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호텔급 객실과 무제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칸 등 열차 내 각종 시설을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강도 높은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이스크림 먹고 펭수 피크닉 매트 받자"

베스킨라빈스, 펭수와 프로모션
패밀리 사이즈 이상 구매시 3900원



세로 145cm)로 여럿이서 함께 즐기기에 좋다. 재질은 패브릭이며, 매트 뒷면은 방수처리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스킨라빈스가 '펭수 피크닉 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부터 매장에서 패밀리 사이즈(2만2000원) 이상 구매시 '펭수 피크닉 매트'를 3900원에 제공하는 행사다. 베스킨라빈스의 '펭수 피크닉 매트'는 펭수를 연상케하는 노란색을 활용한 발랄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다양한 포즈를 취한 펭수 여러 마리를 배치

한 디자인과, '펭-하'를 외치는 펭수를 큼직하게 그려 넣은 디자인 2종으로 구성됐다. 모두 정사각형 모양의 넉넉한 사이즈(가로·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최초 개인정보보호 인증

"지속적인 의료 혁신·보안 강화"

삼성서울병원이 진료, 진료지원, 연구를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제공 부문에서 'ISO27701' 인증(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277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9년 8월 신규 제정한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으로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이번 ISO27701 인증은 영국왕립표준협회(BSI)에서 발행했으며 ISO27001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사전에 보유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송경수 BSI 코리아 총괄책임 등이 참석했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송경수 BSI 코리아 총괄책임으로부터 'ISO27701' 인증(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서를 받고 있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ISO27701 인증 취득은 모든 케어기버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개선한 결과 국제보안 인증을 통하여 인정받은 것"이며 "지속적인 의료 혁신과 보안 강화를 통하여 미래 의료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여름 보양식 대신 알자스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8>佛 알자스 그랑크뤼

예로부터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에너지를 북돋워주는 와인으로 여겨졌다. 이를테면 우리가 여름에 즐겨먹는 보양식 같은 존재다.

이 와인이 만들어진 곳은 분지 지형이다. 여름이 길고, 기온 올라가기 시작하면 38도는 기본이다. 우리나라 대구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더운 곳에서 포도알이 서서히 익는다. 가을은 건조하다. 충분히 익어도 당도는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데 산도가 유지된다. 단단하게 구조감이 있으면서 생기있는 보양와인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어떤 와인인지 말하기 전에 일단 눈을 감고 맛보자. 레드 와인일지, 화이트 와인일지 가늠이 안된다. 탄닌 때문이다. 신선한 과일향이 화이트 와인인가 싶더니 와인을 삼켜도 혀가 천장에 붙어 멈춰있는 듯 입안을 조이니 분명 레드 와인인가 싶다.

다음 잔으로 옮겨봐도 마찬가지다. 스모키한 향이 묵직하게 들어오더니 짝조름하다. 분명 매력적이다.

이승훈 와이너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WSA아카데미에서 열린 '제19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X와이너 알자스 마스터클래스'에서 "알자스의 때루아는 많은 격변을 겪은 지질적인 역사로 다양하고 멋진 복합적인 매력을 갖



이승훈 와이너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WSA아카데미에서 열린 '제19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X와이너 알자스 마스터클래스'에서 알자스 그랑크뤼 와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비벨스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라담, 리슬링 그랑크뤼 뮌쉬베르그, 카스텔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리슬링 글로스베르그. /소펙사

게 됐다"며 "단지 리슬링이라는 품종에 머물기보다는 토양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랑크뤼 와인의 경우 20년 이상 숙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 소믈리에 대회 10, 11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거머쥔 최고의 소믈리에다. 지금은 와인수입사 와이너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알자스 그랑크뤼 포도밭은 51개다. 그냥 휘발유성 향이 특색인 일반 리슬링 와인과 비교하면 안된다. 골격과 아로마에서 각각의 토양의 특색이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와인이 바로 알자스 크랑크뤼다.

'비벨스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라담'은 사암, '리슬링 그랑크뤼 뮌쉬베르그'는 화산퇴적암류, '카스텔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은 편암, '리슬링 슬로스베르그'는 화강암 토양에서 만들어졌다.

이 대표는 "편암 토양의 알자스 그랑크뤼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복합적인 매력이 그대로 표현된다"며 "구조감이 나 정밀함, 단단한 산도 등이 잘 숙성시키면 엄청난 와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자스 화이트 와인은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와인병이 길쭉하고 어깨 부분이 날씬한 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온다. 독일 와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늘고 긴 그와인병과 같다. 와인병이 이렇게 생겼다면 알자스 아니면 독일 와인이라는 얘기.

우리가 일본의 잔재를 싫어하듯 알자스 역시 와인병 속에 담긴 독일을 털어버리려 한 적도 있다. 알자스 와인 생산자들이 모여 와인병을 와인 특색에 좀 더 가까운 프랑스 부르고뉴 병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면서 아픔은 오히려 잠점이 됐다. 과거는 과거일뿐 와인병의 모양새는 멀리서 봐도 알자스 와인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특색이 됐다.

알자스 와인은 아시아 음식이랑 잘 맞다. 오크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무게감이 있어 한식은 물론 태국이나 베트남 등 향 강한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한다.

/smahn1@metroseoul.co.kr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븐일레븐 푸드드림 방배점에서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과 그레고리 브리스코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세븐일레븐 글로벌 71100 호점' 오픈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세븐일레븐 "3.5시간마다 1개씩 오픈" 글로벌 7만1100호점 방배동에 열어

7만1100호점 브랜드 상징 숫자 세계 첫 편의점... 18개국서 운영 韓선 1989년 올림픽점으로 포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례 없는 7만1100호점을 달성했다.

한국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9일 오전 글로벌 세븐일레븐 7만1100호점인 '푸드드림 방배점(서초구 방배동 소재)'을 오픈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는 그레고리 브리스코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글로벌 7만1100호점은 세븐일레븐 브랜드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의미를 지닌다. 마이크 버저 SEI(7-Eleven Incorporated, 세븐일레븐 본사, 미국 델러스 소재) 국제부 선임이사는 이번 글로벌 7만1100호점 오픈과 관련해 "93년 전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편의점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미국 본사와 전 세계 세븐일레븐을 대신해 한국에서의 7

만1100호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오랜 전통과 브랜드 가치를 자랑한다. 세븐일레븐은 1927년 미국 델러스에 태동한 세계 최초 편의점으로 현재 한국, 대만, 태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18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창립 이후 1946년 여타 소매점과 달리 영업시간을 오전 7시(Seven)부터 오후 11시(Eleven)까지 확대하는 혁신으로 지금의 세븐일레븐 브랜드가 탄생했으며, 지금도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 6000만 명, 3.5시간마다 1개 매장이 오픈되는 대표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코리아세븐이 1988년 미국 세븐일레븐과 기술제휴 계약을 맺고 1989년 국내 1호 편의점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편의점 시대를 열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32년간 편의점 최초로 삼각김밥, 세븐카페 등을 선보였고, 도시락카페, 푸드드림, 시그니처 등 다양한 콘셉트의 미래형 플랫폼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브랜드로 성장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11번가 라이브 방송 "과일맛 얼음컵 300원"

CU가 커머스포털 11번가와 손잡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편의점 대표 여름 상품인 델라페 과일맛 얼음컵을 할인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선보인다.

유튜브 생방송은 CU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씨유튜브'에서 9일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방송된다. 개그우먼 이은형, 허안나가 진행하는 이번 방송은 11번가 앱 프로모션 페이지 '이은형&허안나 쿨~한 라이브'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방송 콘셉트는 델라페 과일맛 얼음컵의 색다른 모디슈머 레시피로 쇼호스트로 나서서 이은형, 허안나가 방송을 통해 본인만의 얼음컵 믹스 레시피를 소개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추천 받은 다양한 레시피를 즉석에서 제조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중 델라페 과일맛 얼음컵을 기존 1000원에서 70% 할인된 단돈 3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3만 개를 11번가를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방송에 안내되는 11번가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CU가 얼음컵을 생방송 판매 상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소비자들 여름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출범 3개월 롯데ON, 효자 상품은 '가전'

하이마트와 시너지로 의류 제쳐 홈코노미족 겨냥 가전 프로모션

롯데ON에서 가전 매출이 의류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지난 4월 출범한 롯데ON의 매출을 살펴보니, 오픈 이후 매출이 가장 높은 상품은 가전이였다. 가전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2%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5.7%p 높은 수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5~6월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품목이 의류였던 점을 감안하면 롯데ON이 출범하면서 통합한 계열사 중 하이마트와의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 비교적 중저가인 의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고가의 가전 상품 구매 트렌드가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이 추가되며, 온라인몰에서 가전 상품의 입지가 크게 올라섰다. 이는 쇼핑몰이나 SNS 등에 올라온 제품의 사진이나 영상, 또 상세 가격이나 특징을 '랜선 체험'이 가능해 온라인에서 고가 상품 구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e커머스는 '홈코노미족



롯데ON 가전제품. /롯데쇼핑

(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홈족들의 소비를 겨냥한 경제)을 겨냥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여름철 우리 집 필수 가전 에메이징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더위 날릴 에어컨' 테마로 에어컨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모델에 따라 에어컨을 최대 7% 할인해주며, 신한/KB국민카드로 결제 시 추가로 결제금액의 7%, 최대 15만원까지 즉시 할인 해준다.

대형 TV와 냉장고도 특가에 선보인다. 60인치 이상 대형 TV와 800리터 이상 대형 냉장고 중 행사 모델은 최대 6%까지 할인해주며, 신한/KB국민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7%, 최대 15만원까지 바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LG생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날개 달다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LG생활건강이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날개달기(技)'(이하 여성장애인 날개달기)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날개달기는 국내 최초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를 돕는 신규 사회공헌활동이다.

여성장애인 날개달기는 지난 15년간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 4000여명에게 건강검진권을 제공한 'LG생활건강 행복미소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LG생활건강 임직원들이 기부한 급여 일부와 회사의 매칭펀드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아름다운재단,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여성 25명을 선정해 1인당 500만원 이내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특히 경

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소속 보조공학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교육,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국내 최초 보조기기 전문기관이다.

보조기기는 장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참여형'과 '육아지원형'으로 지원된다. 차량 승차차 및 운전 보조기기, 기립형 휠체어, 컴퓨터 사용 보조기기 등이 사회참여형으로, 휠체어 결합 유모차, 높이 조절 싱크대, 자동 분류 제조기 등은 육아지원형으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경험과 감정,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조 모임도 지원한다.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여성장애인은 육아와 사회 참여에 대한 현실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이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metro경제

2020

100 PLUS FORUM

2020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축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세종시 국회의원)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 기조강연

국내외 경제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강연1

2020 주식투자 전략과 전망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 강연2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강연3

공모리츠 투자와 전망
(남궁 훈 신한리츠운용 사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 시: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장 소: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다주택 단체장 낙인에 “상속받은 시골창고”

이용섭 광주시장 2주택 관련 심경

“별채, 공시지가 2050만원 창고 재산증식 목적이면 비난받아 마땅”

이용섭 광주시장이 ‘다주택 광역단체장’이라는 낙인에 불편한 심경을 비쳤다.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상속받은 시골의 창고까지 싸잡아 다주택 보유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섭 시장 2주택 보유 기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요즘 고위 공직자의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며 “재산증식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뉴시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은 ‘이용섭 광주시장 2주택 보유’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빨리 팔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적극적인으로 해명했다.

이 시장은 “40여 년 공직생활을 거쳐 가진 집은 1993년 구입해 30여 년 거주, 보유해 온 서울 가락동 집 한 채뿐이다(지난해 말 기준 공시지가 6억 7500만원)”며 “어머니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시골 고향집을 상속받았고, 이 곳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골집은) 공부상은 지금도 주택이지만 30여 년 비어있는 공가로, 집이 너무 낡아 일부가 허물어져 본체는 수년 전에 철거했고 별채만 16평 정도 되는데 가족들 추억이 서려있어 그대로 두었다”며 “지금은 집터를 밟으로 사용하는 분이 연장(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고수준이다. 공시지가는 2050만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 할 말이 없다. 오늘따라

평생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고 끝을 맺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매각을 지시하면서 이 시장까지 언급되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2050만원 상당 주택까지 포함해 ‘2주택 보유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시장의 항변은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시장은 서울과 함평 외에 현재 거주하는 광주 서구 매월동 아파트의 전세권(107.73㎡·3억200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한 채 시장으로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적은 광주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는 데는 굶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부산시

AR e스포츠 시장 출사표

부산시는 산하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우드커뮤니케이션즈가 공동으로 새로운 e스포츠 중계 서비스인 ‘실시간AR(증강현실)e스포츠 중계 기술’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실시간 AR e스포츠 중계’는 ‘선수 AR 중계’와 ‘인게임 AR 중계’를 기존 e스포츠 중계에 접목한 방식이다.

‘실시간 선수 AR 중계’는 선수가 경기장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현장 관객과 시청자들은 선수가 경기석에서 경기를 하는 형태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평택해수청

해상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T, LGU+, SKT의 수도권지사 각 대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입파도 등대에 태양광발전 전원시설을 증설해 이동통신 3사에게 중계기 운영에 필요한 전원 및 시설사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이동통신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해수청은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해상이용자들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에 활용코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경주를 K웹툰 중심지로’... 경북도, 웹툰콘텐츠 조성 박차

이현세 작가, 캠퍼스 명예총장 위촉 작가·관련 기업 입주... 내년 운영 누구나 참여 가능한 웹툰강좌 개설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경북웹툰콘텐츠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운영 위원회를 지난 3일 발족한 데 이어 앞으로 이현세 작가를 캠퍼스 명예총장으로 위촉하는 등 경주를 K웹툰의 중심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구 황남초등학교에 약 800㎡(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는 웹툰캠퍼스는 연발 완공을 목표로 현재 내진 및 외벽 설계와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다.



경주시 웹툰 캠퍼스

이 곳은 15명 정도의 작가와 관련기업 입주공간과 교육실, 전시체험장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웹툰강좌도 개설한다.

먼저 9일부터 3주간 웹툰기초교육(스토리텔링과정)이 경주시청 대회의

실에서 진행된다.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웹툰스토리 창작 실습과 개별 피드백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정이다. 특히 이미 드라마로도 제작돼 방영됐던 네이버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해출링 작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스쿨툰

과정’은 대령원 인근 한옥 도서관 ‘문정헌’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웹툰 기초이론과 클립스튜디오를 활용한 웹툰창작 수업을 3주간 진행한다.

그 외에도 1대1 멘토링과 체험 프로그램 등 웹툰에 관심 있는 도민이 웹툰 창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웹툰 관련 상세 교육 프로그램은 경북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 과정 무료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 비대면 콘텐츠 산업 중의 하나인 웹툰산업의 인재를 발굴 양성해 경북 웹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이미지

/전라남도청

美 아마존에 ‘전남 식품브랜드관’ 개장

지자체 최초 농수산물 전문관 친환경 웰빙 브랜드관 집중 홍보

전라남도는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미국 ‘아마존’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농수산물 전문으로 판매할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장했다.

‘전라남도 브랜드관’은 미국 아마존 내 별도의 누리집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맛의 중심이라는 ‘The Kitchen of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친환경 웰빙’ 브랜드관임을 집중 홍보해 입점제품들이 다 함께 매출 확

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에 ‘Jeollanamdo’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상표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브랜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미국 내 아마존 판매대행 전문기업인 Kreassive LLC(대표 Sean Chang)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운영사는 수출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 햇마늘 가격 안정세... 수급대책 영향

계획보다 수매물량 확대 등 적극 대응

전라남도가 추진한 마늘 수급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햇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시세가 형성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 전국 마늘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창녕 산지공판장 경매에서 대서종 상품 1kg 평균 경락가가 3025원을 기록하는 등 현재 마늘 가격은 3000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00원대는 물론 당초 예상한 2500원 선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라남도는 당분간 이 가격대에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마늘 생육상황과 소비 추세 등을 감안, 수확기 가격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제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마

늘 가격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발 빠른 대응으로 전라남도는 예년에 없었던 정부의 마늘 수급안정대책 조기 추진을 비롯 추가 시장격리, 수매 확대, 별마늘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냈으며, 마늘 가격의 회복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자체 확보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비 등 총 102억 원을 적기 집행해 세 차례에 걸쳐 338ha, 5000여 톤을 신속히 시장격리 했다. 또한 정부와 농협, 주산지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수매물량을 확대하는 등 마늘 가격안정에 주력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겨울매추 등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체육인교육센터 부지 현장점검

/장흥군

장흥군

스포츠 등 핵심동력 육성

장흥군이 올해 스포츠, 의향, 안전,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4(four)메카 장흥’을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맑은 물, 푸른 숲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자원에 4가지 핵심 동력을 장착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4메카 육성의 첫 번째 과제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스포츠메카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장흥군의 온화한 기후와, 산·들·강·바다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동계 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

“병원 내 의료 감염병 막아라” 서울시, 관리·예방사업 착수

병원감염 ‘CRE’ 보고 매년 증가
총 1.2만건 보고... 예산 3억 투입
시민 교육 등 4대 실천과제 추진

서울시가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예방 사업에 착수한다. 인구 고령화와 침습적 기술, 의료기구 사용 등으로 의료 관련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의료 관련 감염이란 병원 내 입원 진료에서 발생하는 감염뿐 아니라 외래 진료나 투석, 장기요양시설과 관계 있는 감염을 일컫는 말로 ‘병원 감염’으로도 알려져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중 하나인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CRE 보고 건수는 2017년 1776건, 2018년 3704건, 2019년 47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수감사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지 총 1만1959건이 보고됐다.

이에 시는 올해 2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의료 관련 감염 대응 역량 강화 ▲효율적인 감시 체계 운영 ▲대시민 및 의료기관 교육, 훈련, 홍보 ▲유관기관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4대 실천과제로 삼았다.

우선 시는 권역별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기관의 예방 관리 역량을 높인다. 권역 중심병원이 관내 참여병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심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유행 대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아울러 시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표본감시 기관에서 매주 실시한 항생제 내성검사 결과와 다제내성균 신고건 보고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병 분리율과 내성율, 유행 추이를 파악한다. 내성균의 종류와 감염 건수를 조사하고 환자별 임상 특성을 분석, 예방 관리를 위한 효

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보건소와 시민, 의료기관내원객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한다.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과 권역 중심병원의 내부 전문가를 활용해 최근 급증하는 CRE 관련 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이해 및 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시와 자치구 전광판, 홈페이지에 표출한다.

한편 시는 중소·요양병원에서 CRE 등 다제내성균의 지속적인 확산과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도 취약한 실정이나 감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로부터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한강난지캠핑장 조감도.

/서울시

난지캠핑장에 실개천 흐른다 서울시, 12년만에 ‘리모델링’

캠핑면수 172개→124개로 줄여
바비큐존 등 갖춰 내년 4월 개장

서울시민의 가까운 캠핑 공간으로 사랑받아왔지만 낡은 시설과 비좁은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던 한강난지캠핑장이 12년 만에 싹바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만7000㎡를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9일 밝혔다. 재개장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핵심 목표는 ▲쾌적한 공간 조성 ▲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다채로운 즐길거리 ▲풍부한 녹지 확보다.

밀집도를 낮춰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캠핑면수를 기존의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여 한 면당 면적을 38%가량 넓힌다.

26개 화덕을 갖춘 ‘바비큐존’도 생긴다. 시는 바비큐존이 분리돼 고기 굽는 냄새가 줄고 캠핑장 내 혼잡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핑문화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 도구가 구비돼 있어 일일이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5면)이 신설된다. 또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과 잔디밭에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프리캠핑존’(36면)으로 구역이 나뉜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만798그루의 나무를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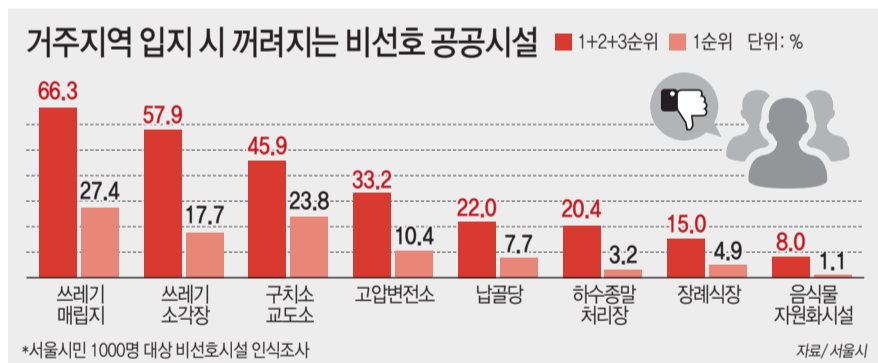
거주지 비선호시설 1위 ‘쓰레기 매립지’ 2위 ‘소각장’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조사
응답자 절반 임대주택 ‘무조건 수용’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시설로 가장 꺼리는 대상은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9~15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66.3%)였다.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가 뒤를 이었다.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태도를 ‘절대 반대’ ‘조건부 수용’ ‘무조건 수용’ 가운데 고르게 한 항목에서도 10개 시설 가운데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



물처리시설’이 가장 큰 비율로 ‘절대 반대’(59.3%)를 받았다.

반대로 ‘청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였다.

공공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7점 만점에 평균점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 ‘쓰레기 적환장·소각

장과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인식됐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사시설(장례식장·납골당)’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6.11점)과 하수처리시설(5.44점)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기관표창·인센티브 등 확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는 파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자 위축된 민간 소비·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일반분야 재정집행 124.6%, 소비·투자분야는 108.9%(1분기)와 140.3%(2분기)를 기

록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재정집행의 구체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용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예산 비중이 큰 각종 SOC사업의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 재정집행에 전력투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파주=안성기 기자 ask9990@

시민 64%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써야”

시민 2000명 대상 여론조사

박원순 시장이 들고나온 ‘공공기여금 사용처의 광역화’에 서울시민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9일 공개했다.

공공기여금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받아 가는 제도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에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3%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1.0%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응답자 326명만 놓고 보면 두 대담 비율이 47.4%로 똑같이 나왔고 ‘잘 모름·무응답’은 5.2%였다. /김현정 기자

도로 포트홀 사전차단 서울시, 콘크리트 포장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을 막기 위해 올해 8곳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0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범 설치했는데 이후 10년간 포트홀이 한 건도 없었다.

올해는 경인로 1곳, 공항대로 2곳, 송파대로 5곳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포트홀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금)
음력 : 5월 20일

수도권 날씨
28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21/27
- 동두천 21/28
- 백령도 20/26
- 파주 21/27
- 가평 21/27
- 서울 23/28
- 인천 23/28
- 양평 22/28
- 수원 24/27
- 용인 24/27
- 평택 22/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라이프] 코로나19 극복나선 유통가 CEO 니



Life

[바이오] 건강기능식품에 꽃힌 제약사 L2



위기 속에도 1분에 1장 ‘밀착관리’ 피부 탄력 UP, ‘밀착홍보’ K뷰티 위상 UP



‘텐션 플렉스 하이드라 마스크’



메디힐 ‘텐션 플렉스 수딩 마스크’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메디힐

‘0.1초에 한 장씩 팔리는 마스크팩’ ‘1일 1팩 신드롬’, ‘1억불 수출의 탑’ 등 연일 새로운 기록으로 K-뷰티의 위상을 드높인 기업이 있다.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이 그 주인공이다.

메디힐은 피부 전문가의 임상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25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기획·개발해온 마스크&패치 전문 브랜드다.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 수많은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세계 26여 개국으로 마스크를 수출, 이익의 환원을 위해 메디힐 재단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메디힐은 ‘텐션 플렉스 마스크’를 지난 3월 출시, 석 달여 만에 누적 판매 17만 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1분에 1장씩 팔린 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에도 메디힐 ‘텐션 플렉스 마스크’는 3월 중순 출시 이후 6월 하순까지 올리브영 출고 데이터 기준 총 17만758장이라는 유의미한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텐션 플렉스 마스크’ 출시 시기인 3월, 올리브영 내 메디힐 매출은 전월 대비 18% 성장하며 올리브영 마스크팩 부문 부동의 1위 브랜드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드럭스토어 채널 내 메디힐 매출은 ‘텐션 플렉스 마스크’ 출시 이후부터 5월까지 출시 전달과 대비하여 매월 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해외 벤더들의 러브콜들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 확대 역시 검토 중에 있다.

‘텐션 플렉스 마스크’의 인기는 작은 얼굴 및 리프팅 케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섬세하게 캐치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기존 유사 제품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트를 구현한 데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V라인 리프팅 마스크팩의 경우 시트 양끝을 귀에 걸치는 형태로 사이즈가 잘 맞지 않



메디힐 전속모델 현빈.

/메디힐

10년간 피부고민 해결 위해 연구 26개국 수출... ‘글로벌 브랜드’

신제품 ‘텐션 플렉스 마스크’ 3달만 누적판매 17만장 돌파 탄력 있는 시트로 ‘완벽 밀착’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흥행에 日서 폭발적 인기... 소비자 ‘호평’

거나 헤어에 에센스가 묻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메디힐 ‘텐션 플렉스 마스크’는 시트 양옆 날개 모양의 원단을 턱에서부터 눈꼬리 옆까지 당겨 올려 붙이는 형태로 불편함 없이 완벽한 커스터마이징 텐션감을 선사한다.

해당 마스크는 텐션감 있는 시트가 얼굴 전체를 타이트하게 조여 주어 한층 또렷한 얼굴선 케어를 돕는 마스크팩이다. 신축성이 우수한 원단에 특허 받은 54개의 V컷팅 칼선 디자인을 입힌 이중 구조 시트로 어떤 얼굴이든 굴곡을 따라 완벽하게 밀착된다. 시트 양쪽 하단 날개 모양의 원단을 턱에서부터 눈꼬리 옆까지 당겨 올려 붙여 주면 원단끼리의 자가 접착력으로 시트가 탄탄하게 고정돼 보다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텐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된 시트는 유효성분의 흡수를 극대화해 준다. 보습에 특화된 ‘텐션 플렉스 하이드라 마스크’는 8중 히알루론산과 4-세라미드 성분으로 수분 충전 및 피부 보습막 형성에 도움을 주며, 진정에 특화된 ‘텐션 플렉스 수딩 마스크’의 경우 티트리잎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 등을 함유해 자극받은 피부의 수딩 케어를 돕는다. 두

제품 모두 메디힐 연구소가 독점 개발한 메디힐 인코어 콤플렉스 처방으로 수분 보습 및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도 메디힐의 인기는 대단하다.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신드롬급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해당 드라마의 제작 지원사이자 주연 배우 현빈을 전속 모델로 기용한 메디힐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지난 2월 하순 넷플릭스를 통해 전편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은 10주간 일본 TOP 10 콘텐츠 순위에 오르며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 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높아진 현빈의 인기가 메디힐에 대한 관심과 소비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일본 내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시작된 지난 3월 메디힐 일본 총 매출은 약 1억 6300만 엔(한화 약 18억 원)으로 넷플릭스 전편 공개 직전이었던 2월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메디힐 ‘W.H.P 블랙 마스크 JEX’는 지난 2월 일본 정식 론칭 이후 1달 만에 일본 최대 화장품 리뷰 플랫폼 ‘앳코스메(@cosme)’ 상반기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에서 마스크팩 부문 3위를 수상했다. 론칭 직후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내 비어티샵이 두 달여간 문을 닫았던 악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제품력으로 다수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2020년 상반기 일본에서 출시된 3500여 개 마스크팩 신제품 중 우수 리뷰 제품 3위에 오른 것이다.

메디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메디힐 홈페이지